

칭하이 무상사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The Dogs in My Life

베스트셀러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의 작가



칭하이 무상사
100% 원산지
100% 원산지

칭하이 무상사



Recommendations from Readers Worldwide





Recommendations
from
Readers
Worldwide



Recommendations from Readers World

전세계 독자들의 추천사

디오스다도 탈라마얀 D. D. 대주교 예하 (필리핀): ...무척 행복했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읽고 또 읽으며 사실 우리가 공통된 소망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스런 동물 친구들의 삶은, 땅에 살든 바다에 살든 우리가 바라는 삶과 똑같이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소중히 돌봐져야 한다.”라는 것이다.

헬무트 니츠쉬케/ 영화감독 (독일 베를린): 본문에서, 행간에서, 사진과 제목 간에서, 그리고 사진들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이 존엄하게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모든 방면에서 그들을 돕자는 호소를 말이다. 우리는 우리 동물 형제들을 신이 주신 선물로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존재를 기꺼워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

제인 벨레즈-미첼/ 에미상 수상 뉴스기자: 무상사는 우연히 만난 유기견들을 구조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한없는 친절로 인간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되살렸다. 우리가 진화하려면 말 못 하고 무력한 동물들을 존엄과 사랑, 친절로 대해야 한다. 오, 그토록 많은 개들을 모두 구조하고 사랑할 백만 명의 무상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신에 전 세계 사람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와 조언에 귀 기울이길 바랄 뿐이다.

K. 첸/ 전(前) 미국 하버드 대학교 부연구원: 머리말에서 스승님은 “모든 존재들은 우리와 같다...”라고 쓰셨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옛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제물론』에서 “천지가 나와 함께 생겨났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구절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걸 정말로 경험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승님의 책을 읽고서 체험할 수 있었다. 개와 인간에게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우리 영혼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물들이 받아 마땅한 모든 존중과 평화, 사랑을 베풀어 그들과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동물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삶과 똑같이 사랑과 보호를 받고 소중히 돌봐져야 한다.”는 지당한 말이다.

J. 캄벨/ 경영학 석사 (캐나다 오타와): 어렸을 적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의 개 텍스였다. 다른 사람들은 텍스를 피죄죄하고 늙은 개로 봤지만 내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는 매일 빛나는 갈색 눈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칭하이 무상사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2)』에 나오는 그녀의 개들 눈에서 그와 똑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 있었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책이다!

S. 리브/ 아동 교육 교사 (캐나다): 반려견들과 교감하는 스승님의 멋진 사진들이 담겨 있고 각 사진마다 익살스럽고도 친절한 말씀이 덧붙여 있었다! 이는 정말 예술 작품이자 인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바치는 헌사이다!

마가렛 오말리 (아일랜드 더블린):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은 아주 멋진 책이다. 무척 다채로우며, 우리 모두 동물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사진들은 동물들의 품위와 그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마르크 게사트/ 대학생 (독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와 그녀의 개들은 정말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 준다. 그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들의 놀랍도록 감정이 풍부한 삶을 엿볼 수 없었을 것이며, 그녀의 개들이 아니었다면 깨달은 스승이 각 존재들의 내적 요구에 따라 완벽하게 돌보는 모습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예술 작품은 경이로운 동물의 세계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시대로 들어서는 정말 위대한 발걸음이며, 이 개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걸 보면 우리도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최현주 (대한민국 서울):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세 마리 개인 빛돌이, 몽글이, 멩밍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잘 때 동화책처럼 이 책을 읽어 주면 편안하게 잠들고 사랑을 느끼는 듯하다. 몽글이는 이 책을 읽는 것도 아주아주 좋아한다!

양미영 (대한민국 서울):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동물들이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즐거움과 슬픔, 행복, 만족 등 온갖 감정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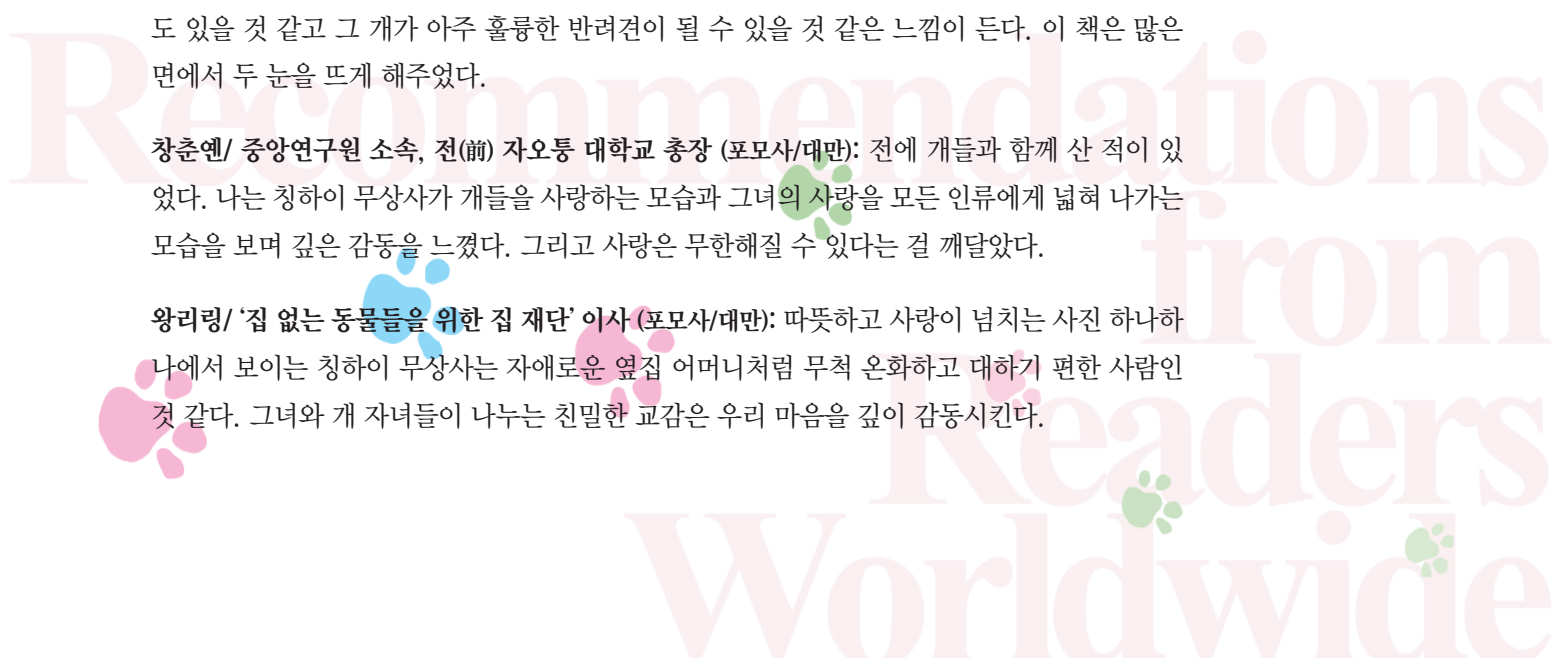
A. 쉬레스타 (네팔 카트만두): 스승님의 사랑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까지 닿는다. 그녀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들을 대변하는 유일한 분이다. 동물 친구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스승님의 노력은 수많은 삶에 긍정적인 결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 훌륭한 책의 독자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이 존재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단순한 방식으로 숭고한 생각을 보여 주지만 그 속에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스승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동물 친구들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살아 있는 본모습을 보이신다.

A. 펜튼/ 영어 교사 (호주): 이 책은 스승님의 견공 친구들이 가진 가장 내밀한 감정과 사랑이 넘치는 일상의 생각들을 묘사한 감동적인 메모이다. 마음을 고양시키고 놀라움과 감흥을 주며 겸허한 마음이 들게 한다.

코어 크리스토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이 책은 정말 개들도 사람들처럼 개성이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진 깨닫지 못했던 점이었다. 나도 보호소에서 개 한 마리를 입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개가 아주 훌륭한 반려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책은 많은 면에서 두 눈을 뜨게 해주었다.

창춘연/ 중앙연구원 소속, 전(前) 자오통 대학교 총장 (포모사/대만): 전에 개들과 함께 산 적이 있었다. 나는 칭하이 무상사가 개들을 사랑하는 모습과 그녀의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사랑은 무한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왕리링/ '집 없는 동물들을 위한 집 재단' 이사 (포모사/대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진 하나하나에서 보이는 칭하이 무상사는 자애로운 옆집 어머니처럼 무척 온화하고 대하기 편한 사람인 것 같다. 그녀와 개 자녀들이 나누는 친밀한 교감은 우리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다.



내 인생의 개들

The Dogs in My Life

칭하이 무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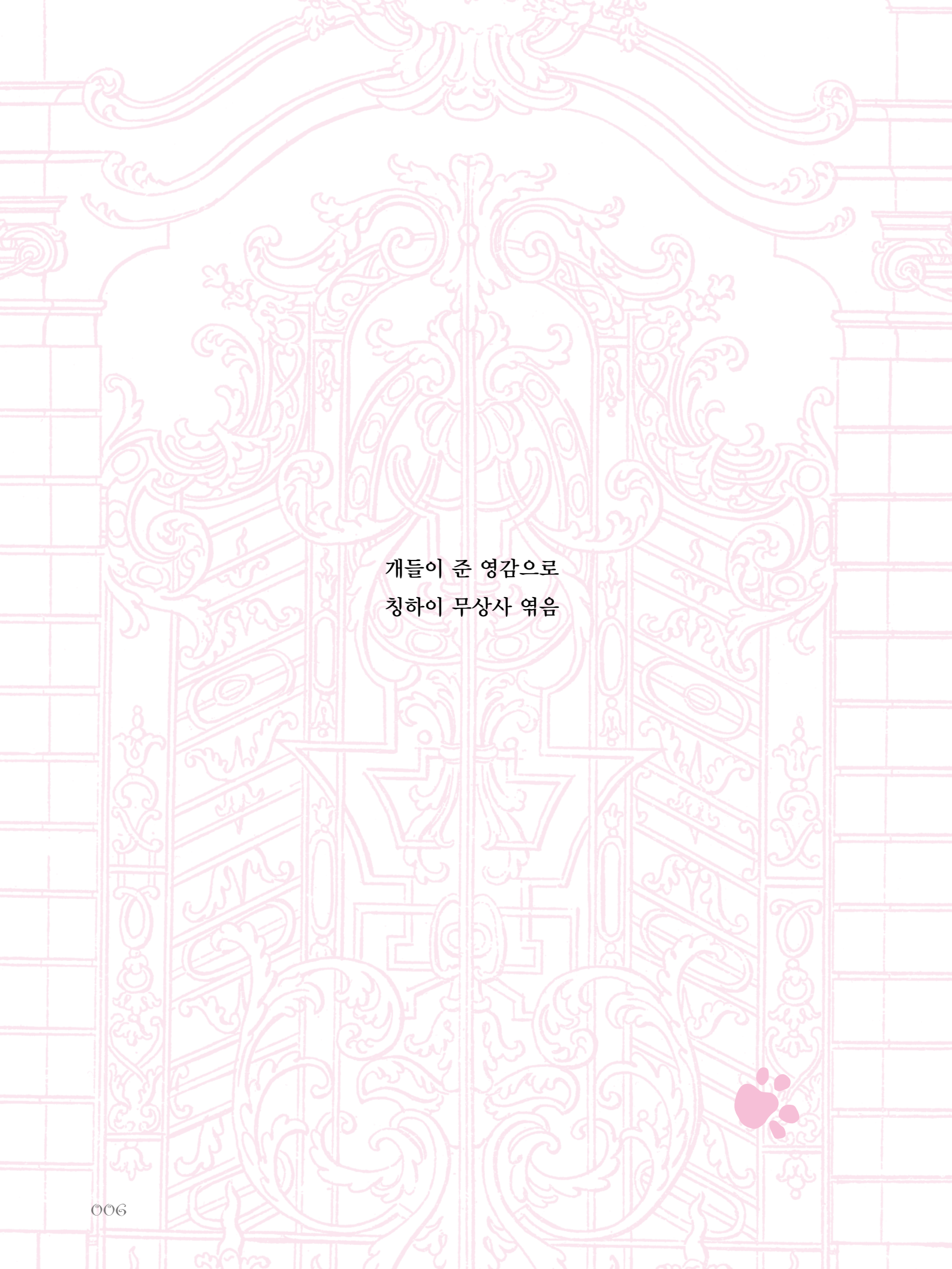
버터플라이와
예의바른 떠돌이 개 피터에게,
그리고 내 인생의 개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똑같이
충만한 사랑을 전하며



우리는 갖가지 품종의 개들로 이루어진
이상한 무리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사랑하는 '애완' 인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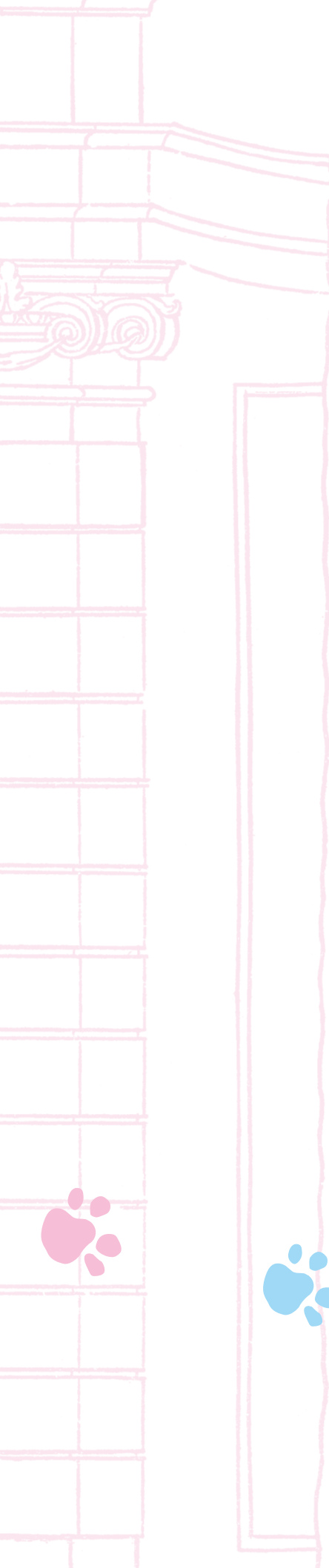






개들이 준 영감으로
칭하이 무상사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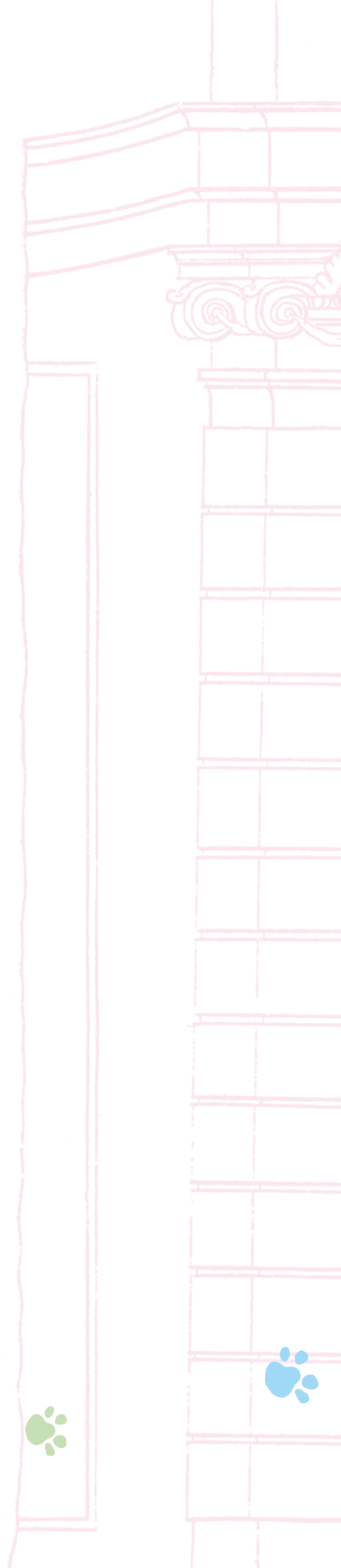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개들에게:

1. Benny
2. Lucky
3. Happy
4. Hermit
5. Goody
6. Boyo
7. Lady
8. Pomas
9. Zolo
10. Hally





집 사진을 찍은 이들:

Supreme Master Ching Hai

Crystal Vo

Victor N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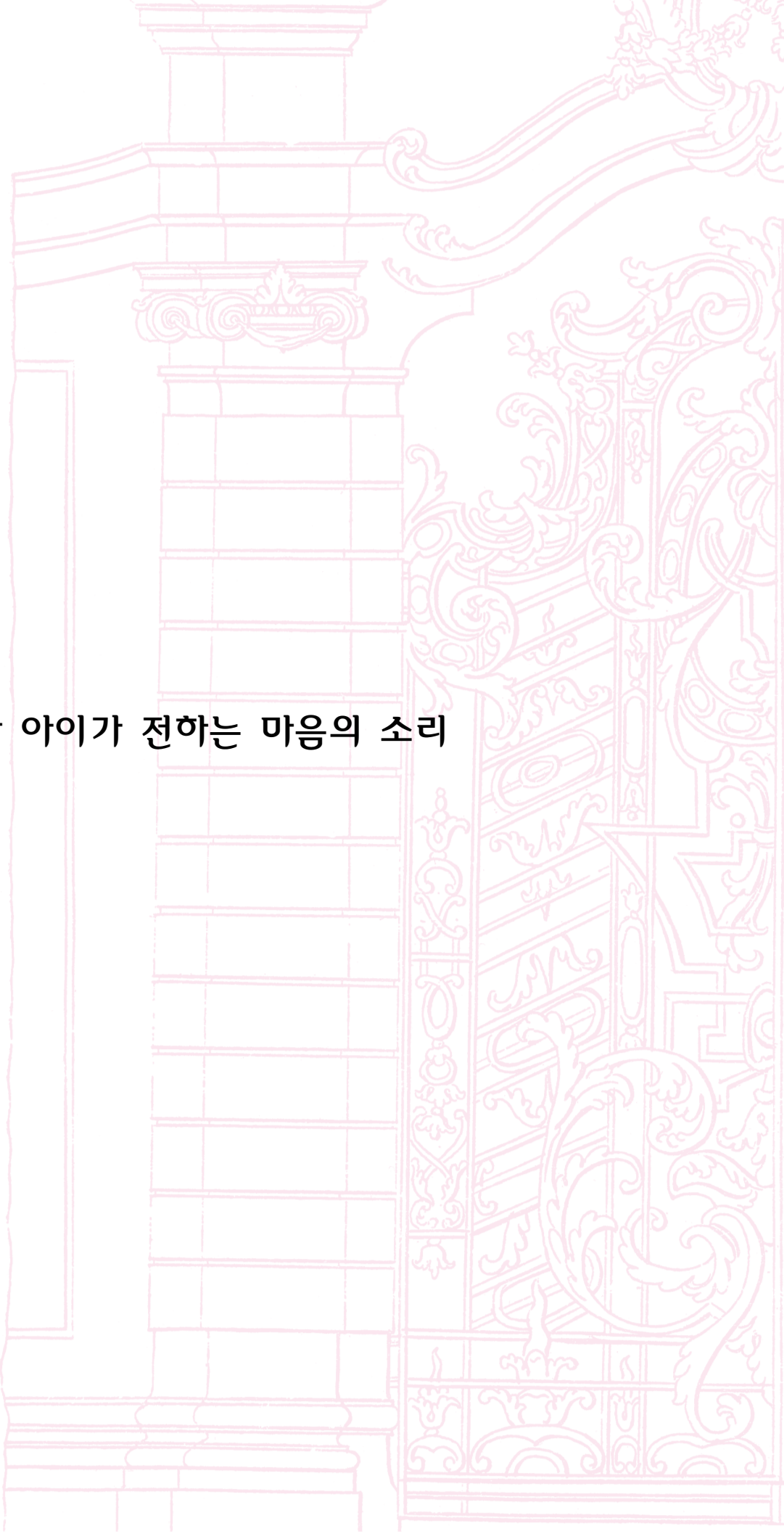
T. June

Thomas Lux

Steven André

Danny Vu





한 아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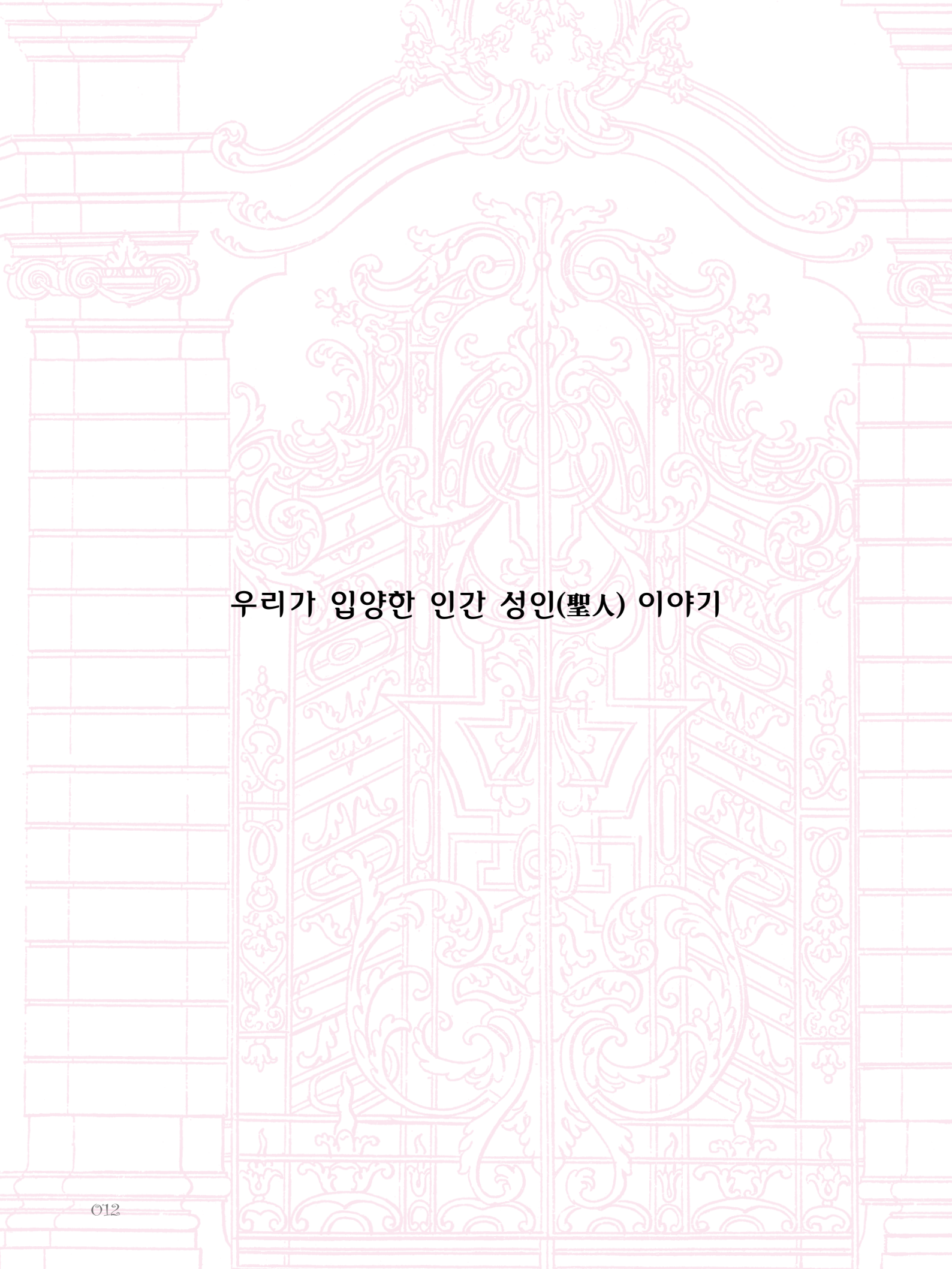
이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이
어떤 삶을 누려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들입니다.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혹은 바다에 살든
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삶과 똑같이
사랑과 보호를 받고 소중히 돌봐져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늘이시여, 친애하는 인과의 왕이여,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소서.
궁지에 처한 그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위 천국에는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위로 데려가 사랑을 베푸소서.
이것이 모든 존재들을 위해 올리는 저의 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자비심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서로 화목하게 공존하기를.
모두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용서하기를.

~ 칭하이 무상사



우리가 입양한 인간 성인(聖人) 이야기


10마리 행운의 개들(Benny, Lucky, Happy, Hermit, Goody, Boyo, Lady, Pomas, Zolo, Hally) 공저

~ 경서 팀 엮음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 또는 간단히 말해 우리 ‘엄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하이 무상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해 타고난 크나큰 사랑을 보임으로써 이미 성인이 될 운명의 징조를 보였답니다.

깨달은 스승이 되고 난 후 그녀는 관음법문(내면의 빛과 소리에 집중하는 고대의 명상법)을 가르치고 채식은 장려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반만이라도 채식하면 지구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요. 먹거리를 위해 동물들을 죽이는 것이 폭력적인 분위기를 낳는데, 이것이 다시 인간들 간에 폭력과 전쟁, 불행을 싹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동물들의 삶과 인류의 삶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답니다.

이 성인(聖人)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녀가 스승일 수도 있고 위대한 교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물들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엄마일 뿐이에요. 그녀는 엄마가 하는 일들은 다 해요. 이를테면 우리를 씻기고, 우리에게 음식을 해주고, 노래를 불러 주고, 산책시켜 주고, 우리와 놀아 주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친구들이랑 그녀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 하나하나가 우리처럼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고 사랑을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
인간과 모두에게.



칭하이 무상사 약력

칭하이 무상사는 중부 어올락(베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18세 되던 해 학업을 위해 영국으로 이주한 칭하이 스승님은 나중에 프랑스와 독일로 옮겼는데, 독일에서는 적십자사에서 일했고 독일인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2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 후 그녀는 남편의 축복 속에 어린 시절부터 내내 품고 있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깨달음을 추구하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여러 나라를 도는 고된 순례는 히말라야에서 살아 있는 완벽한 스승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성스러운 내면의 빛과 소리를 전수받았으며, 이후 이를 관음법문(觀音法門)이라 칭했습니다. 한동안 수행에 정진한 후 그녀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신실한 구도자들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음법문이라는 명상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그녀의 메시지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적 해탈과 희망을 가져다주며, 모든 이들에게 진선미(眞善美)의 삶을 살도록 일깨워 줍니다.





1. BENNY



2. LUCKY



3. HAPPY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재된 영성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 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을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들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BENNY

Benny, '공식적으로' 내 최초의 개. 말티즈.

보호 기질이 강하고 사랑이 많고 충직하며 들러붙습니다(사람에게 달라붙는 것을 좋아함). 정식 학위를 받은 학자입니다.

별명: 대장, 알파, 만형, 학자.

그는 K-9 사관학교라는 애견 훈련소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품행과 교양은 학교 측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가 졸업을 하게 되어 내가 그를 집에 데려오기 위해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선생님이 누우라고 하자 누웠습니다. 내 팔에 안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선생님이 '일어나서 걷는 걸 허용하지 않아서' 훈련된 병사처럼 조금씩 조금씩 기어서 내게로 왔습니다. 그가 졸곧 '포복' 자세로 마침내 내게 도착하자 선생님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건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Benny는 매우 자비롭고 상냥합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다가가서 그 사람이 기운날 때까지 위로해 주고 사랑해 줍니다. 내 시자 중 한 명은 우는 척 연극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Benny는 그에게 다가가 여기저기 키스해 주곤 했습니다. Benny는 특히 어린이들과 다른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다친 새 같은 걸 발견하면 내가 와서 돌봐 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지켜주지요. 그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다친 동물들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채식 개껌을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볼일 때문에 Benny를 집에 두고 가느라 달랠 요량으로 개껌을 주면 안 먹고 팽개쳐 둔 채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서 부루퉁해 있습니다! 그는 내가 들어오라고만 하면 언제나 편안한 자기 소파 침대를 제쳐 두고 내 자리나 침대로 슬금슬금 기어들어 옵니다.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또는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할 때

마다 그는 천국에라도 온 듯 신나서 내 침대나 소파, 침
낭, 바닥 등 온갖 곳을 마구 굴러다닙니다.

그는 사랑의 화신입니다. 높은 차원의 영혼이지만 나를
사랑하고자 겸손하게 작은 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뿐이
랍니다.





처음 저뿐이었어요.
유일무이한 Benny.



엄마! 나 여기 밖에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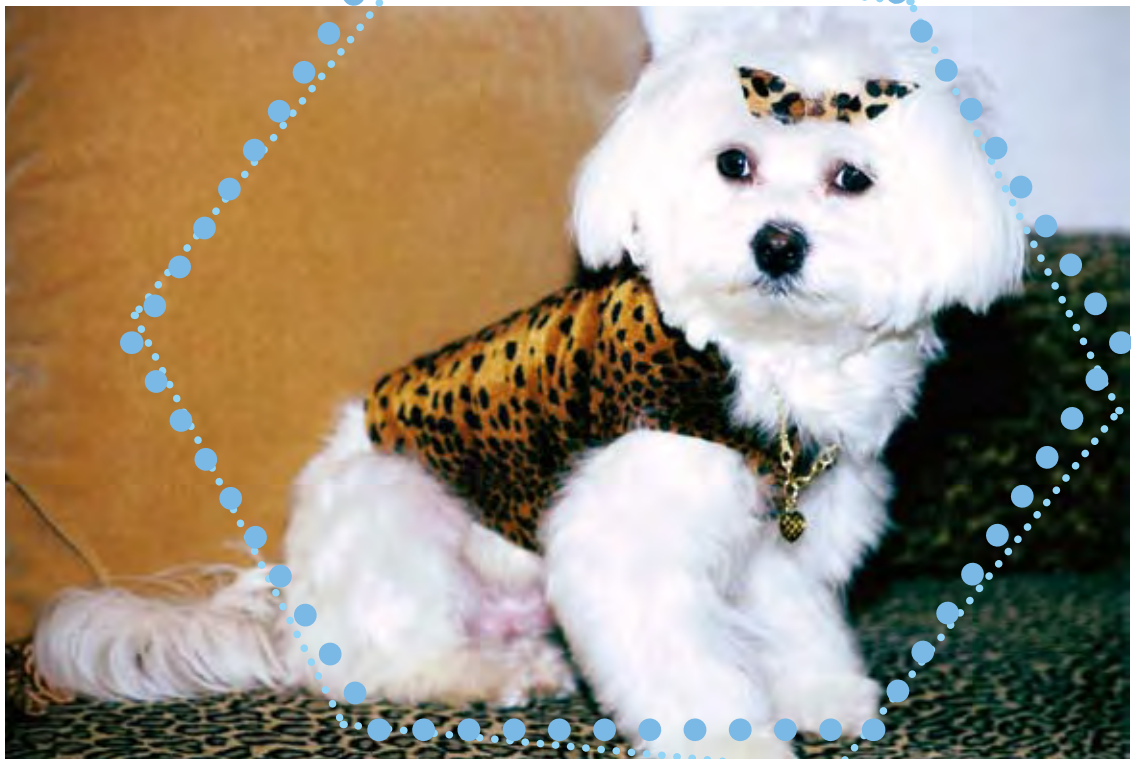




이 행복하는 누구일까요?



5개월 때 찍은 내 공식 사진





흰 눈 속에서도 내가 보이나요?
빨간 조끼를 입고
눈도 까맣고 입도 까맣고 코도 까매서 다행이에요.

(발바닥도 까만데
여기서는 안 보이지요!)






여긴 캐나다예요.

제가 다섯 살 때였죠.

덜덜덜..... 아이고 추워라!

천만다행으로 우리 몇 달 뒤에 이사를 했어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태어나서
이런 흰 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하고 엄마가 살았던 곳은
겨울에도 햇살이 비치거든요.
엄마랑 같이
정원을 산책하거나 해변에 갈 때말고는
전 항상 집안에 있었어요.



사람들 말처럼 눈이 정말로 그렇게 차가운지 한번 보려고요.
한 가지 말해 줄게요. 눈은 정말 부드러워요. 아주 잘 파져요.

캐나다는 정말 너무 '시원'해요!
나 같은 '털복숭이'한테도요!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우리는 정말 정말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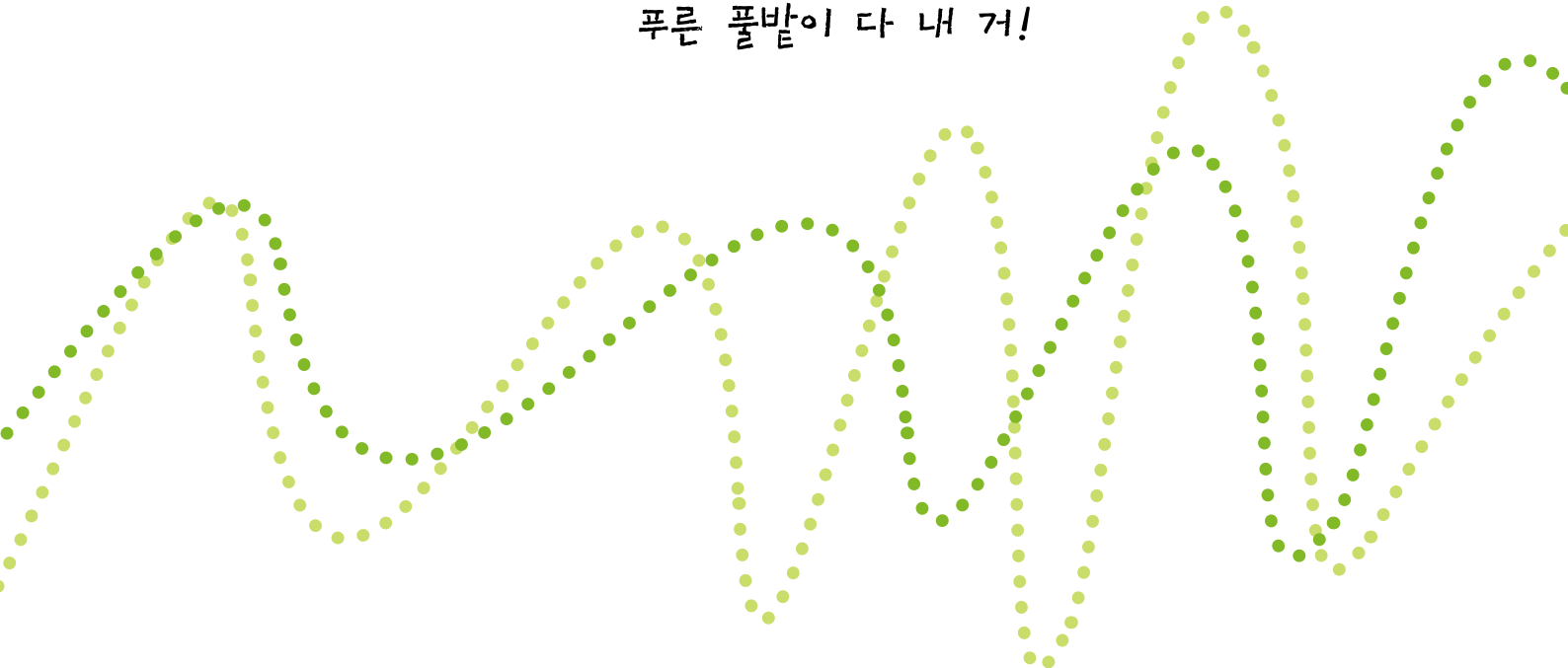


이~야!



우아! 우아! 우아!

푸른 풀밭이 다 내 거!





제 잘못이 아니에요.
진흙 때문이죠.
제가 파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날 사랑해요.

이런, 비누칠 높이는 싫어. 손톱만큼도 안 짹아!



아니라니까. 난 옷이 아니란 말야!



꼭 이래야만 돼?

됐어!.....
좋아.
이런 거였군.
목욕하고 나니
기분이 날아갈 듯!





이제 깨끗해졌어요!
(뭘, 다음번 외출 때까지는.)



아이고! 이 연약한 목에 달라붙은
끈적거리는 풀 좀 떼 주세요!



거기요!

기분이

훨씬 좋아요.

고마워요,

엄마!





에, 난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녀가 바로 내 미래니까요. 



거기요, 거기……

내 예쁜 털에 또 끈적끈적한 풀잎 하나가 붙었어요!
반갑지 않다고 말해 줘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얼굴이 온통 진흙투성이거든요!



음, 좋아요! 여기 보세요!
맘에 들어요?

하!
하!
하!





형제애
나

충실하라



나는 누구인가?



상관없어!

엄마는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이 절로 나는군요!
내가 있던 데는
더럽기 짝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주 갑갑했고!
아주 불친절했어요!



내가
텃밭에서
뭘 캐 수 있는지
보세요.



아!
감자잖아!
흠,
난 익힌 감자만
먹어야지.

여기엔
식물들이
정말 많네요,
엄마!



천연
샘물의
맛,
상쾌해!



또 감자네!

게다가 집에서 직접 가꾼

유기농 감자!



아주 많이 걸은 데다
'일'도 많이 했다고요!



내가 부럽지 않나요?
사실은,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쌍둥이 같죠!
이웃집 소녀예요! 예쁘고 까불까불해요!



난 울 엄마 아들이야.
넌 누구니?



Bella! 난 Bella야.




그럭구나!
난 Ben이야, Benny!

Bella라고 해,
너네 옆집에 살아!



나 잠야 보라!





이휴!
너무 피곤하다.

야~호! 나 여기 있는데.

야~호! 나 여기 있는데.

야~호! 나 여기 있는데.





이거 위장 놀이인 거야, 뭐야?



여기가 더 은밀한 것 같아.



하지만 여기가 더 안전하지.



자! 두 분 카메라를 보고 웃어 주세요!



‘나눔’, 보살핌.....



그러고선

하나가 더 왔어요.

푸들?!

아니요, 비송이에요!

“비이이쇼~옹”

오 라 라!



그리고 또 하나.

잡종 테리어!

너무해!

“나누어야 하고 보살펴야 하고…….”

다 알아요!

하지만…….



음!
내가
조그맣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난
4개월밖에
안 됐는걸요.



음식말고요.
사랑을 주세요.



신참, 본때를 보여 주지.
덩치는 문제가 안 돼.

넌 힘이 세지만,
난 똑똑하다고!



이건 내 거야!
저쪽에 있는 더 큰 게
네 거잖아!



그래도 우리 사이 좋게 지내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한은 말이죠!



하하!
내가 말했잖아요. 누가 우리 무리에 들어오든
내가 최고라고요!



명상 시간 때도요.



이 녀석, 푸들인지 뭔지는
좀 이상하군, 흠!



왜, 내 침대 '위'에 있는 거야!

(뒤편! 반밖에 안 걸쳐지잖아!)



너한테는 너무 '작은' 것 아냐?



Puh가 좀 들러붙긴 하지만
우린 꽤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 둘한테 전생의 인과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내가 말한 '들러붙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얘는 엄마한테만 들러붙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들러붙는 걸 좋아해요!



우리 언제나 **최고의 친구!**



사랑하는 하느님!
이 명상-
언제나 끝날까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정원을 뛰어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럼 우리 둘은?

미안해,
네 자리는 없어,
Lucky!





날 좀 내버려 둬!
'녹색' 채식 개껌을 씹고 있을 때는
'적색' 접근 금지 구역이라고!

엄마가 계시는 곳은 어디나,
안팎으로

천국이라네!





정말 좋아! ♥





하지만.....
때론,
나 자신이
좀..... 작게 느껴져.

그리고 불안하기도.



그냥 좀 궁금해지네요.

윤희의 속박에서

누가 날 자유롭게 해줄 것인지?





저 어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류가 안 흐르는 것 확실해?



Puh, 저쪽에 뭐가 있을까?

한번 가 보자!

그래, 엄마가 코드 빼 놔어.





여보세요!
(익살스런 카메라.)



그 다음엔
이 친구가 왔지요.
이 녀석은
어디서 왔나?

그러고선 또..... 애가 왔어요! 오, 세상에!





뭐, 불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 보·지요?

우리 가족이 점점 늘·나고 있·어요.

복·적·거·리·긴· 하·지·만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애네들은 '내 집'에서 빈둥대기만 해요.
시키는 것도
이젠 지켜워요.

Goody!

한 번이라도 그림자에 대해

좀 잊어버릴 수는 없겠니?



자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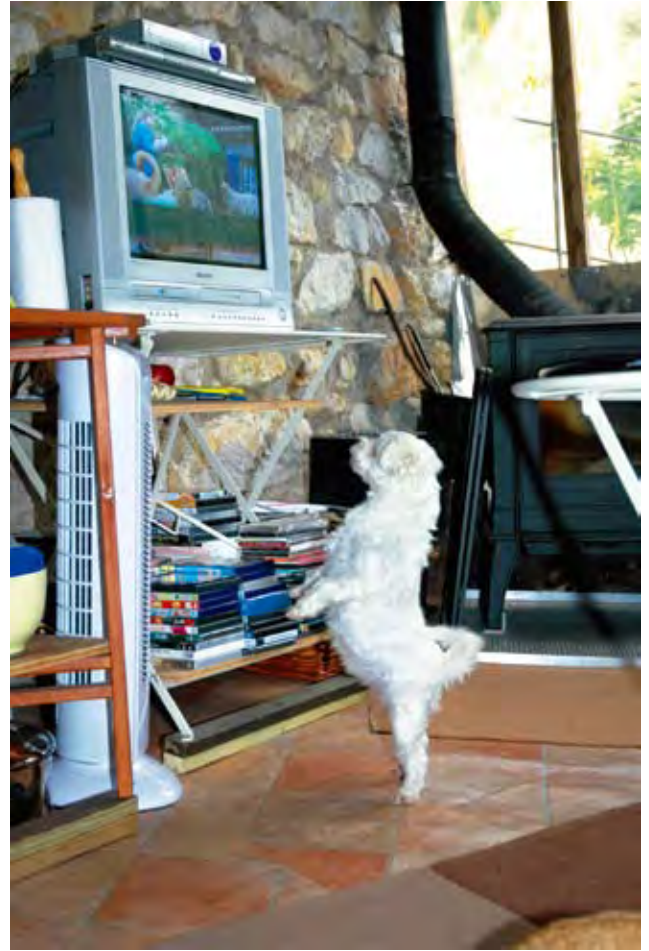
우리에게 잠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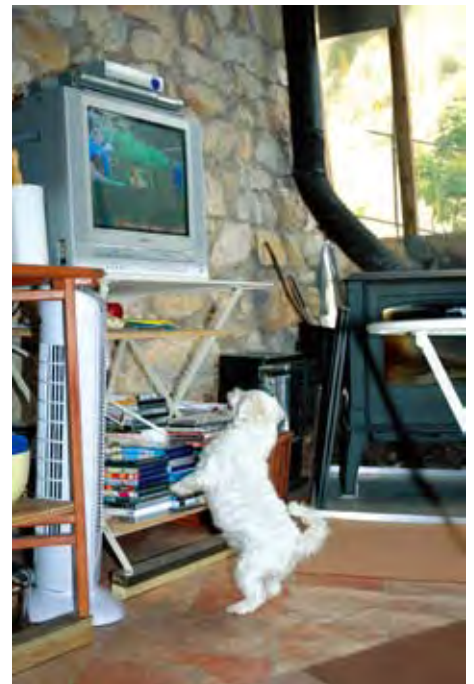
Ben, 엄마는 외출하셨지만 돌아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가까와면
훨씬 웃을 테데!



쟤네들이
이리 내려와서
나랑 좀
놀아 주면
좋겠다!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죠.....
아, 이건
이발해서 그래요!
엄마가
또 자랄 거라고 했어요.
(희망 사항!)



미래라는 건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 같지?



뭘 보고 있는 거야?



부끄럽게 만들지 좀 마.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중이라고!



이야! 이런 게 인생이야!
이런 것이 사랑이지!
이거야말로
진정한 왈왈!





저 귀엽지 않아요?
엄마는 그렇다던데!

아름다운
피오 피오 거



건강에
좋아요!



나의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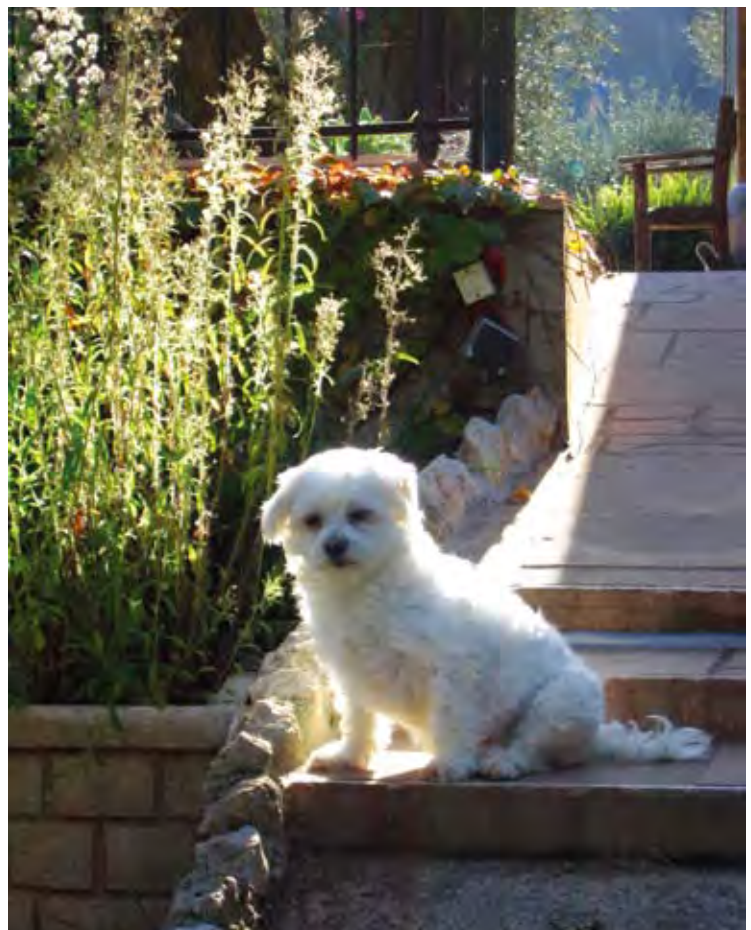


나의 천국!



모두와
함께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외롭기만 해.

엄마가
곧
돌아오실까?





이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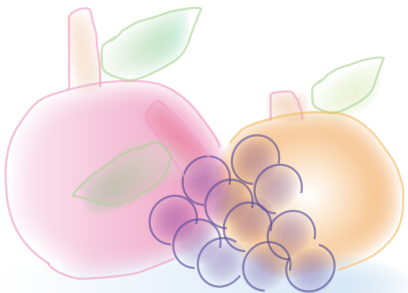
여럿이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예! 새로 온 이 날개 달린 애하고도요!

단지 애는 너무..... 엄마한테 들러붙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나눔에 대해 배웠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린 모두 채식주의 해요.





아-하! 이럴 수가!
간밤에 새끼 돼지들이 여기 왔다 갔잖아!
내 영역이라 표시한 냄새를 무시하다니!





집에 누구 없나요?

불일 다 봤어요.
들어보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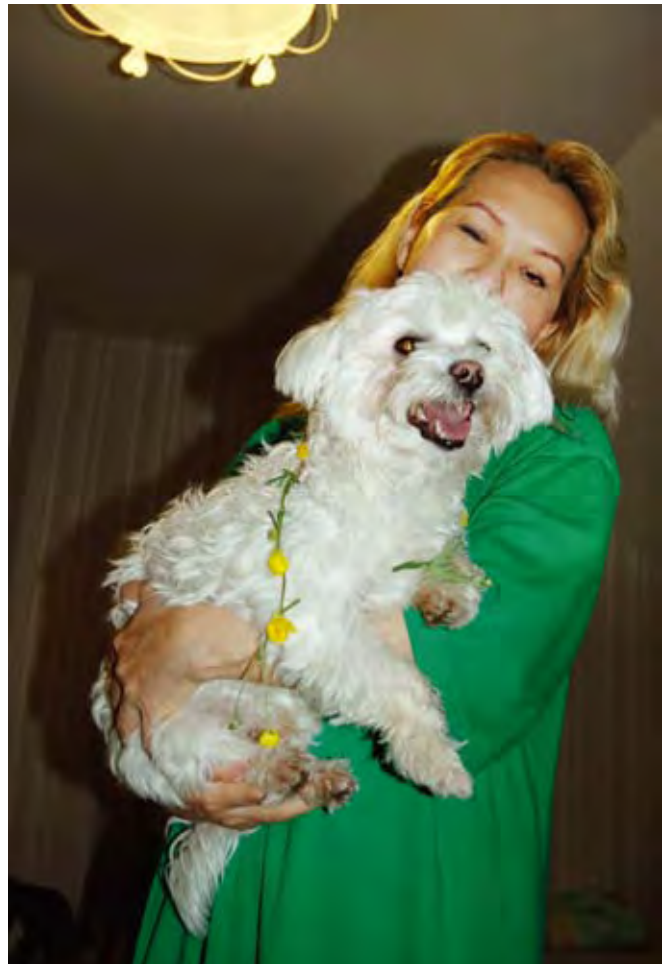
보세요,

전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지금 당장
증명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녀석들이
똑같이 해 달라고 조를 때면
이런 기회가 안 돌아와요!)





난 텔레비전이 좋아요.



애는 덩치만 크지,
내가 꼭 잡고 살아요.
믿어 주세요!



애는 언제나
내 말을 잘 들어요!



이 친구도 내가 ‘꽉 잡아’ 났죠.

우린 정말 ‘멋진’ 사이예요.

그는 내가 대장이라는 걸 알아요!

애 이름은 Zoi예요. (엄마가 지어 주셨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애는 우리 중에 서열 9위예요.

그 뒤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엄마가 그만 입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상 대식구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얘는 Boyo예요. 음……

가만 있어 보자…… 일곱째가 여덟째가 그래요!

Bo, 우리가 저 숲 속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니?



LUCKY

Lucky는 플로리다의 한 동물 보호소에 있었습니다. 죽을 찰나에 있던 그는 처음 데려왔을 당시 심하게 아파서 응급 치료를 받았는데, 치아 대부분이 썩었기 때문에 치아 수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시체 썩는 듯한 악취도 풍겼습니다. 전에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고 보호 기질이 강하며 들러붙습니다.

별명: 혀 내밀기 대장, 노인네, 과일광(과일을 좋아해서), 똥싸개, 오줌싸개.

내가 동물 보호소에서 데려왔을 때 Lucky는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 달 동안 간호해 줘야 했지요.

그가 따로 격리되어 있던 이 기간 동안 나는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가 있는 우리 안에서 놀아 주곤 했습니다. 그는 테니스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회복된 Lucky는 언제나 내 욕실로 몰래 기어들어 와 샤워 부스 밖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문을 열면 입에 물고 있던 공을 샤워실 안으로 던지면서 나더러 놀아 달

라고 합니다!

또 나는 그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많이 들어간 특별식을 주었는데, 그는 그때부터 과일과 채소를 무지 좋아하게 되어 과일이나 채소가 없으면 밥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린 농담 삼아, 그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과일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다른 음식을 먹일 때도 과일로 유혹합니다. 점심을 안 먹으려고 하다가도 앞에서 사과 한 쪽을 흔들어 대면, 이 사과 ‘뇌물’을 받으려고 밥을 먹는답니다!

우리가 그냥 놔두면 Lucky는 밤낮을 안 가리고 다 큰 어른이 먹는 양만큼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Lucky는 나의 ‘보물단지’입니다. 그의 크고 순진하고 행복한 눈망울은 아름답기 짝이 없어서 처음 만났을 때의 슬픈 모습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를 ‘수만 달러 강아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를 데려왔을 당시 그가 온갖 응급 치료와 치과 수술을 받으러 직행해야 했기 때문이랍니다. (가장 실력 있고 가장 비싼 의사한테 간 것은 물론이고요.)

일단 치료를 시작하자 Lucky의 아픈 부위를 모두 치료하는 데 미화 1만 달러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달러 강아지’란 이름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내게 있어 그는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난 줄곧 그렇게 말해 주고 있고, Lucky 또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Lucky는 아주 정이 많습니다. 내 무릎 위에서 잠자는 걸 그 무엇보다 좋아해서 내가 내버려두면 과일 이 든 식사조차도 거를 지경이지요!

“넌 금방
괜찮아질 거야.”

내가 온갖 병을 가지고
온몸에 빨간 반창고를 붙이고 처음 도착했을 때.....



(햇도그처럼 보이지만, 전 먹는 게 아니에요!)

내 털의 변색된 부분을 가리느라고
엄마가 과일 색소로 붉게 물들여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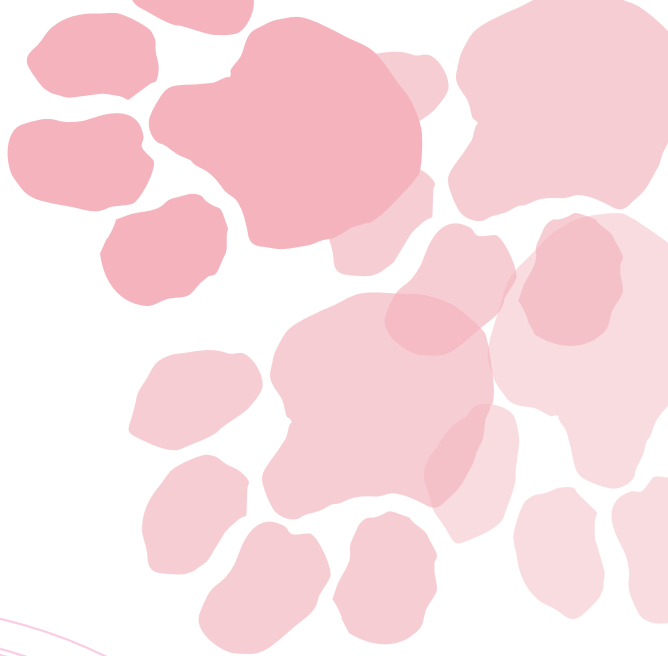
맘에 들어요! 훨씬 멋져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죠!
손질도 잘돼 있고 특별하고!





비좁긴 하지만,
포근해.
정말 좋아!





괜찮아요.

저는 구석이 좋아요.

(꿀찌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전 괜찮아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것뿐이에요.





보호소에서 죽을 뻔한 찰나에

엄마가 입양했을 때, 전 몹시..... 아팠어요.



엄마와 도와주는 분들이 석 달 동안 간호해 줬지요!



“넌 금방
괜찮아질 거야.”



다들 이런 것들 좋아하지요!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지금은
회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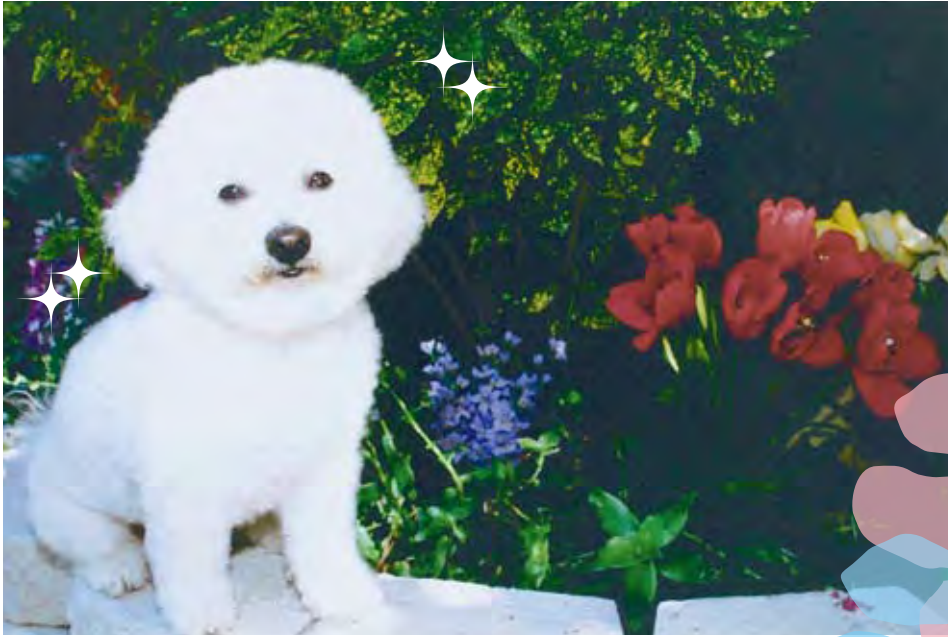
다 나왔다! ♥





저예요,
Lucky!

이 세상에



바로 저예요!

건강하고 씩씩해졌죠!



여기 이 애는 친구 Benny예요.

평소엔 더 행복한 모습인데.



영원한 것이 있을까?



Ben,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불행히도,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천국에는 있지!



어휴!.....
노는 건 이제 말도 마!



얘는 또 다른 친구예요.

저는 채식 강아지가 되었어요.
-핫도그 아니고 멋진 강아지요-

그리고 명상도 해요!

이 사진이 증거예요.





더없이 행복해



저는 “자잘한 문제들은
신경쓰지 않아요.”
큰 문제도 신경쓰지 않고요.
사실 전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는답니다.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셋이 합치면 하나보다 낫다!






그리고 우리 위에는 '멋진' 우두머리가 있지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수의사가 필요 없어요.





햇볕 아래 있노라면 모든 게 다 좋아! 

맞혀 보세요





정답입니다!





미안해!
자리가 다 찼어!



‘저’요? 찾을 수 있겠어요?



넌 나보다 작아서 안 돼.
귀여운 Ben, 힘 빼지 말고 그만 포기해!



아직도 날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들을 겪고 난 뒤
계속 생각 중이에요.
그녀가 정말 날 계속 키워 줄까?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마지막 안식처일까?

내 말은.....
앞날이
좀 걱정스럽잖아요?
(일단 버려진 적이 있으면.....)






“왜 그러니, Luck?”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에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이 사진은 한 달 동안 집중 치료를 받고 난 다음 모습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면
예쁘게 꾸며 주세요! 

여기요! 여기를 보세요!





나는 **여**기**버**요.....



.....사랑도 듬뿍 받고요.





여기요! 나 정말 예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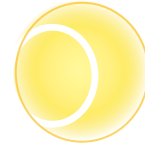
나는야 스타!



예!
바로 저예요,
맞아요!
전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하! 하! 정말 웃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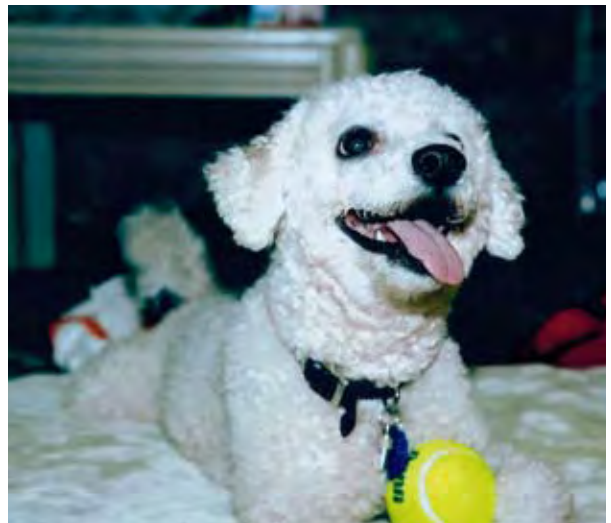


예전 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공보다 훨씬
기운 자리가 많았어요!


처음 왔을 때
'거무튀튀'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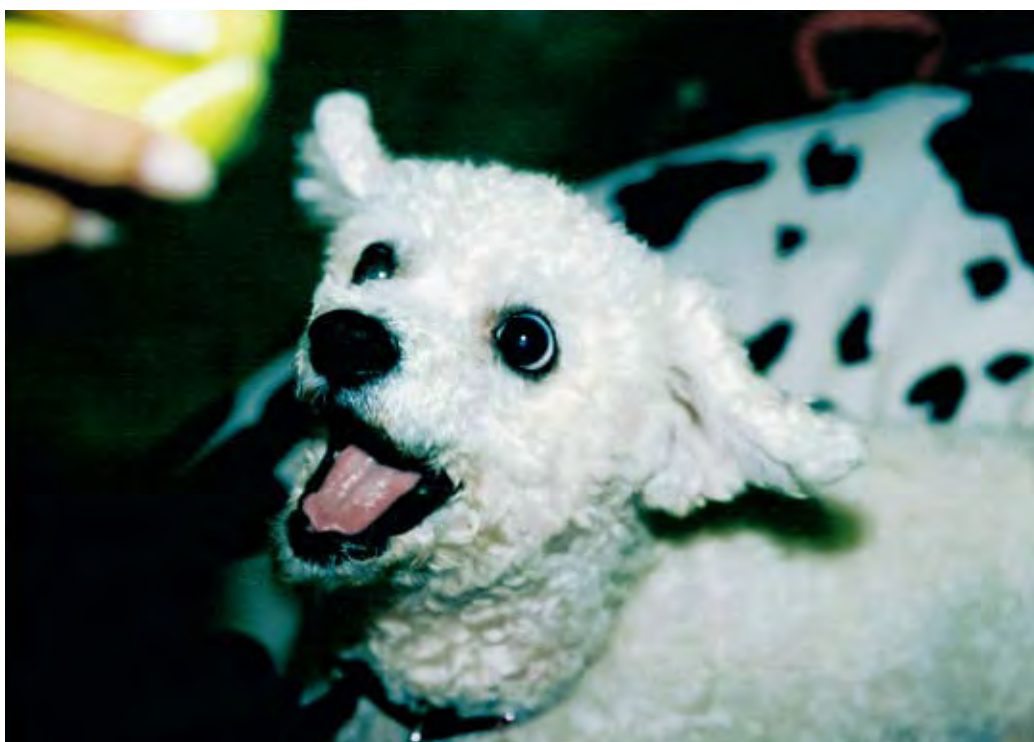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 좀 주세요!



지금요! 알겠죠? 어서요! 



이 기분 알지요!
원하는 걸 다 가진 기분.





전 사랑받고 있어요! 전 확실히 알아요.



(1번)
내가 싫어하는 사진.



이게 확실히 더 낫군요.
왼쪽의 1번 사진은
머리 부분이 잘려 나가서 싫어요!

옛날 제 삼은 고달팠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콤하지요!



예! 저예요, Lucky.
6개월이 지난 모습이지요.
(알아요, 저도 제 모습을 못 알아보겠네요.)

또 저예요! 최고의 행운아.
(최고의 치과 의사와 여러 수의사들, 일류 미용사의 손을 거치고 나서.....)



마음을 녹이는 사랑!

마음을 녹이는 사랑까지 더해졌지요!

꿈속에서도 더없이 행복하답니다.








이 붉은 털을 가진 애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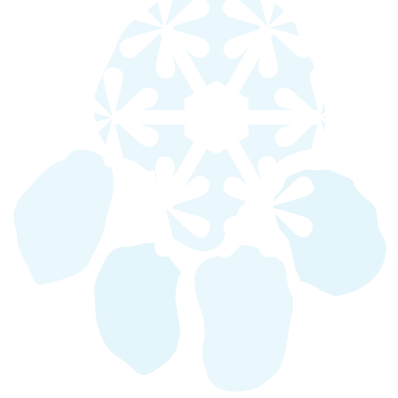
캐니다가 좋아요!



오! 캐나다! 전 캐나다가 좋아요!
제 혀 좀 집어넣게 도와주실래요?



우린 그래도 별로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하늘에 감사드릴 일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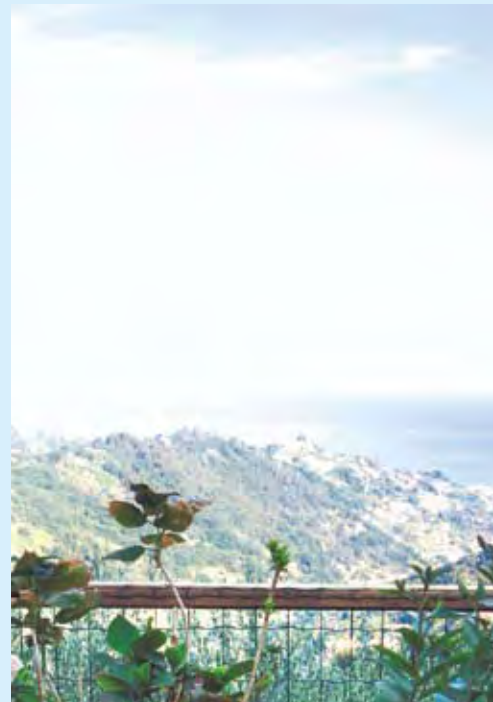


내 혀가 어떻게 된 거지?
도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얼어 버린 적은 없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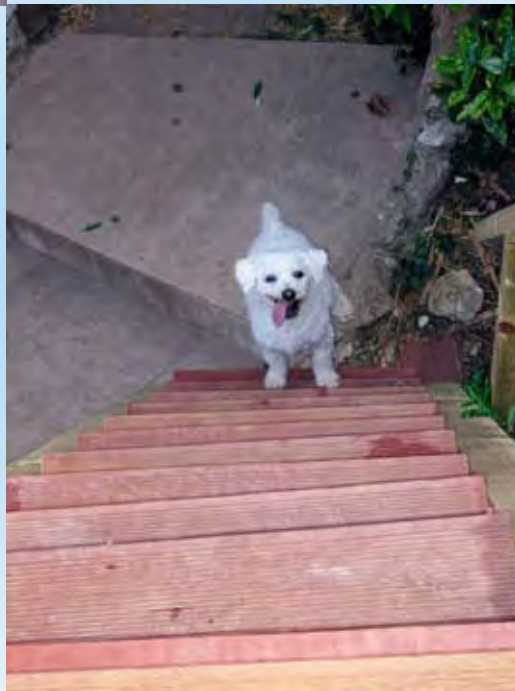
그 얼어붙을 것 같던 시절은
다신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요기를 위해
여기 몇 장 넣었어요.

보람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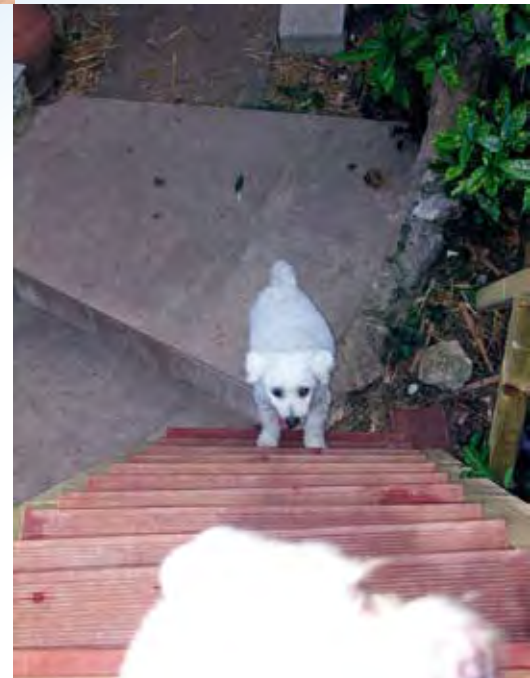


기다려 주세요!



올라갈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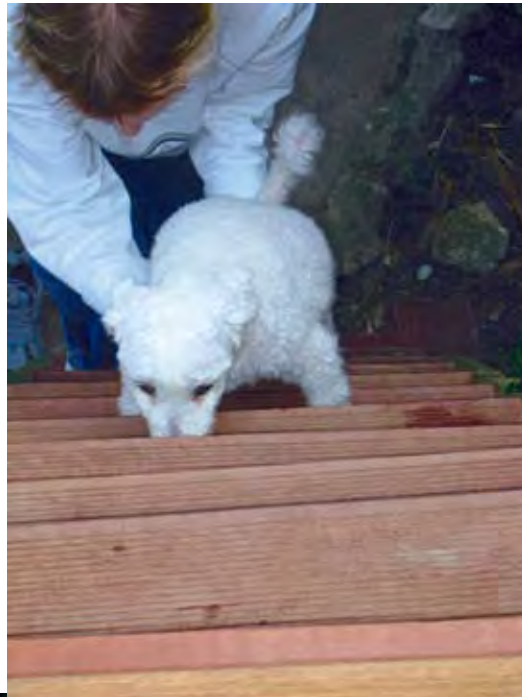
오..... 이거
심상치 않은데!



거의 다 왔어요,
엄마!



높어서가 아니에요.
점심을 너무 먹어서.....
이건..... 중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단이잡아요!



친구,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나!





와! 높은 데 올라온
보람이 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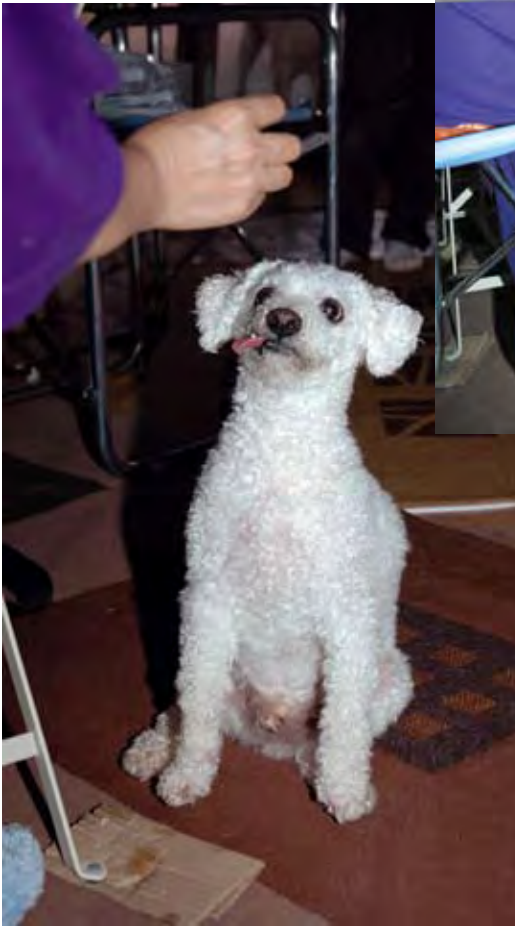


우린 언제나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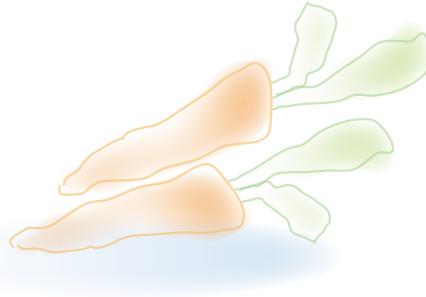
알았어. 알았어.

제가 좋아하는 것 알잖아요.
애걸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이에요, 제발,
이제 좀 주세요!!!



아아.....



얘얘!
당근을 먹으면 날씬해져요.



너무 많이 먹는 건
나한테 안 좋은 거 가아.
아무리 채소라 해도!

이런 모습
안 좋아해요.
.....손톱만큼도.



내 쿠션은
어디 갔지??!
내 담요는?

나 같은 왕자님한테
이거 너무 '초라'한 것 아냐!



엄마가 말씀하셨지.
“명상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행복하다!”

맞아요, 맞아! 하지만 전 여기가 더 좋아요.
안 그래요?



(두 사진에서 다른 점 일곱 가지를 찾을 수 있나요?)
찾았다면 자신에게 푸들 한 마리를 상으로 주세요!



이 친구들은 낮이나 밤이나
함께 놀아줘 세월 다 보내네.



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부릐' 위에서 이렇게 즐기는 건요?



완전히.....
잠매로.....



서서도 명상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영혼에 좋아요!
개를 안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도 두뇌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야!



그래요! 머리가 헝클어진 날은 누구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린 언제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름날 산들바람이 불어도
겨울날 햇살이 비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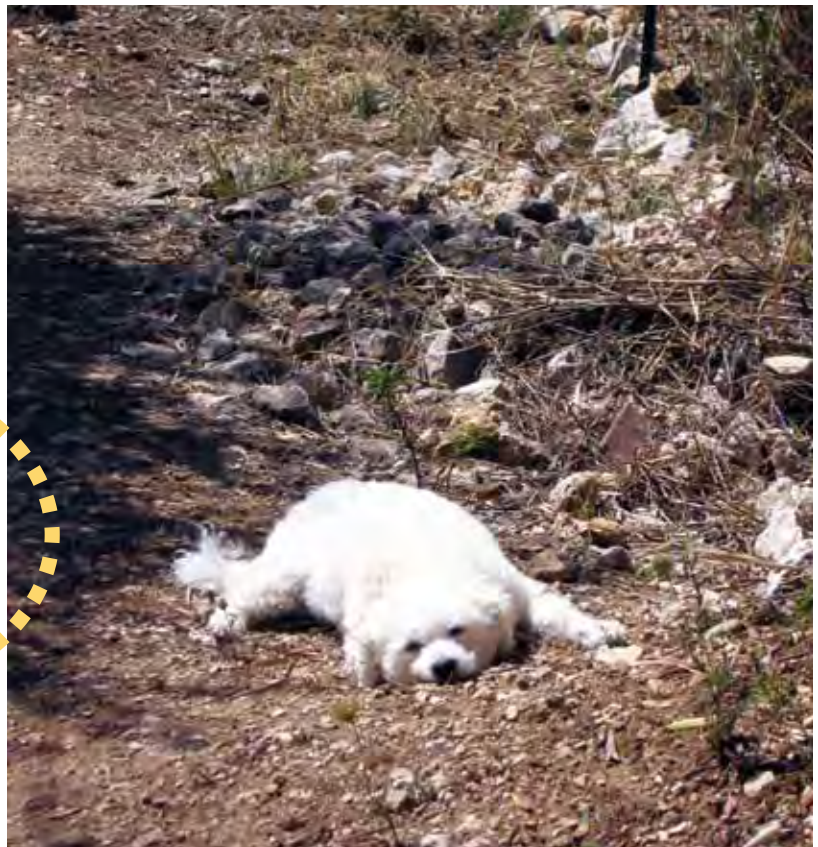
수행자.....

내 수준(!)과

같거나

더 높거나.

어디서나
편안해!
정말로!





그래도 역시
엄마 소파가
내 소파.



엄마 집이
내 집.



엄마 무릎에 있을 수만 있다면,
누가 있건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 안 해요!



날 좀 보세요!



이겼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언제나 내가 제일 높이 있다고!

난 단체 사진이 좋아요!



특히 잘 다듬은 모습으로
좋은 이들과 함께라면.



새로 온 친구가 있어요. 누구게요?
(힌트: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냅니다.)
근사한 탁자 밑에
그 애하고 같이 숨어 있는 중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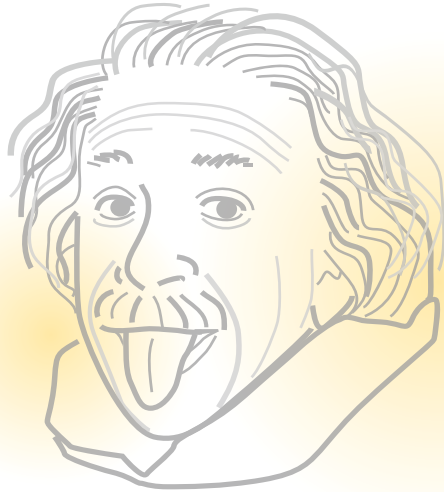
아니, 아녜요!

제가 그분(아인슈타인)하고 좀 비슷하긴 해도
우리 아무 혈연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아이큐 쪽은 아니지요.

어, 혀는 좀 닮았을 수도.

..... 그리고 털을 잘 빳은 날엔 머리 모양도.





HAPPY

그녀도 보호소에서 입양하였습니다(Lucky와 같은 곳이었죠). Happy는 처음엔 수줍어하고 서먹서먹해했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사내 녀석들 모두 그녀를 사랑하지요. 그녀는 풍부한 눈짓으로 말합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이나 동물, 나무나 그 밖의 것조차도 사랑합니다. Happy는 사랑이 많고 충직하고 보호 기질이 강하며 들러붙습니다.

별명: 새침떼기 공주(암전을 떨어서), 고디타(뚱뚱한 여자라는 뜻의 스페인어), 살랑이(꼬리뿐 아니라 온몸을 흔들), 카쿠(예전에 도마뱀붙이를 즐겨 먹어서).

그녀에게는 다른 개들은 하지 않는, 나를 향한 자신만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밤에 자기 혼자 내 침실에 있다가 내가 들어오면 배우처럼 연극을 하지요. 머리를 낮추고 등을 낮춘 다음 앞뒤로 좌우로 번갈아 가며 뛰어오르면서 놀다가 내 옆으로 온몸을 던집니다. 계속 그러다가 내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쓰다듬어 주면 그제야 다른 개들처럼 앉아서 내 여저저기에 키스를 퍼붓고 뒹굽니다. 그 모습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Happy는 인간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알면서 행하고 또 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또한 몸으로, 모든 걸 말해 주는 표정이 풍부한 눈빛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은 내가 너무나 아파서 참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방에서 소리 내어 울고 있었는데 Happy가 곁에서 안절부절못했어요! 그녀는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내가 그칠 때까지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Lucky도 내 무릎에 몸을 던지고는 공공거렸습니다. 그러고선 둘 다 밤새도록 내 곁에 누워선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다른 개들도 내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요.



저도 해요, 보세요……

저는 ‘**질문**’ 명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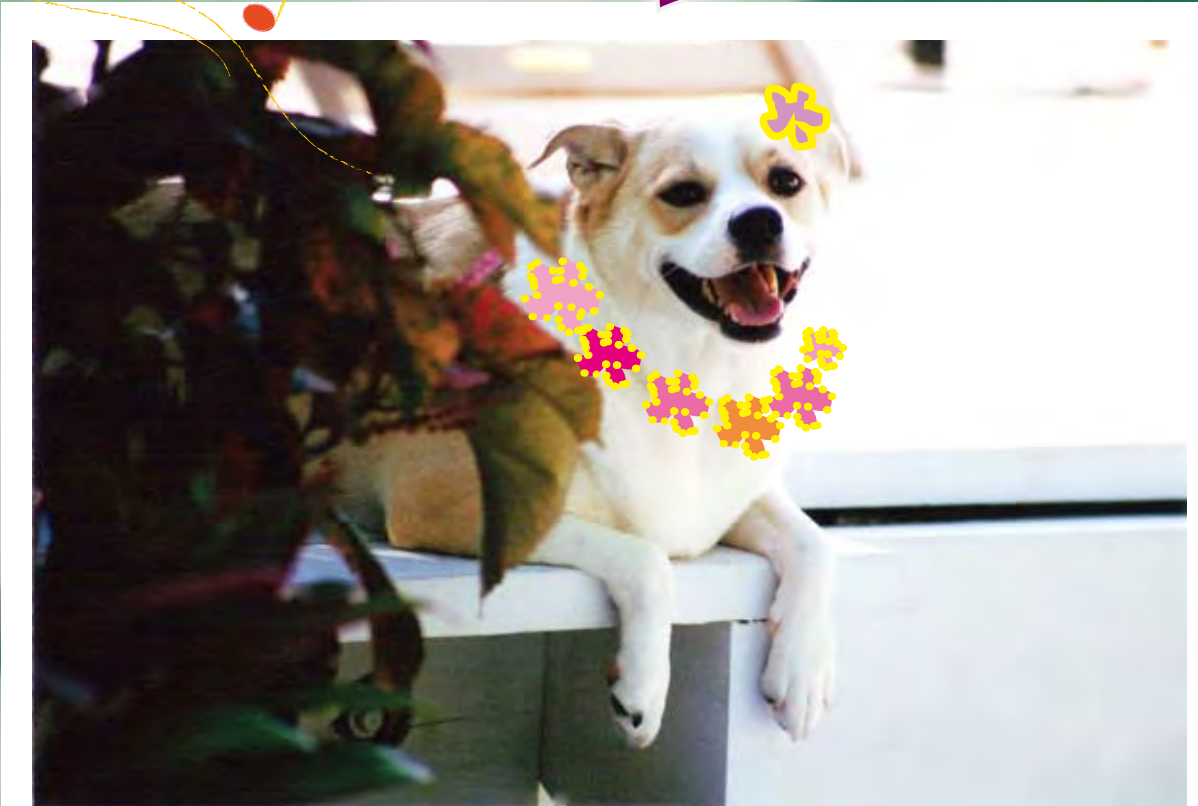
무릎 위에서도요.

우린 매일 '단체명상'을 해요.



사
우
레
미
.....

노래라네.





아니면?
그렇잖아?

삶이란 뭘까???



삶이 이대로 계속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렇까?

여기가 내 영원한 집일까? 영원히 사랑받게 될까?

지금처럼 이렇게
삶은 잘 흘러가고 있어.
친구들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함께 우린 느끼지..... 멍멍!





새엄마는 날 사랑하는 게
분명해!
날이 갈수록
매 순간마다,
간식 때마다,
더욱더 확실해져!



저 Happy예요.

못 알아보겠어요?





저는 여전히..... 'Happy'해요.(슬픈 게 아님!)
우수에 잠긴 척 포즈를 취한 것뿐이에요!

..... 멋진 배우처럼요!



오!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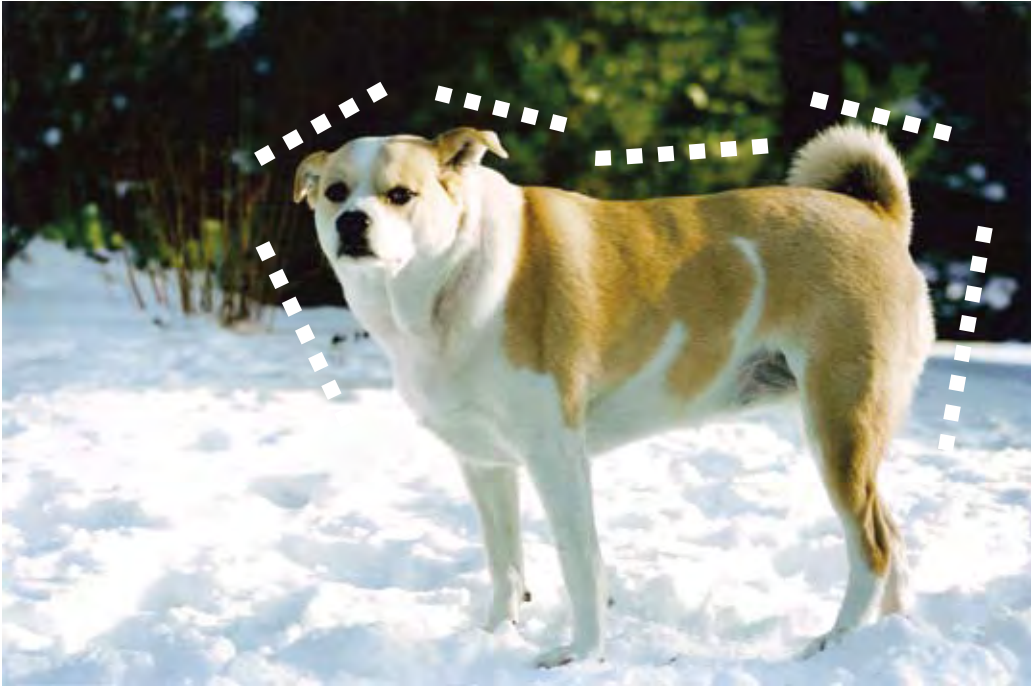


내 발은 여태 이런 느낌을 느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하얀 것들은 대체 뭐지?
어디서 나타난 거야!
어제까진 여기 없었는데!



왜 엉덩이도 추운 거야!

요 자세로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동상이 될 게 분명해!



하지만 '행복한' 동상은 아니겠지.



얘들아, 어딴니?
이젠 재미없단 말야!
누가 내 외투 좀 갖다 줄래?!

함께 몸을 맞대면 따뜻해.





너는 저쪽, 나는 이쪽.

어느 쪽 눈이 더 하얀지
한번 가 보자!

어째서

내
공
똥
이
가
!

차
가
운
거
지
!



평소대로 앉았을 뿐인데!



이상하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욱더 차가워지네.



자세를 바꿔 봐도
소용이 없어!





오늘 밤 여기서 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군!
구멍을 더 깊이 판다거나
눈 담요를 덮는다 해도 말야.





집이 언제나 최고!

안 그런가요?







쿨

쿨

쿨

“깨우지 마시오.”

“방문에 그렇게 쏘여 있잖아!”





끼 데 없어?



좋아! 좋아!
난 여기
아래 앉겠어.



믿어 주세요. 저도 애완견이에요.
무릎에 앉을 수 있다고요!



봤죠?!



말했잖아요, 난 애완견이라고.





“물론, 재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진짜 동물들은 쫓아다니면 안 돼요.”
(알아요!)



다 같이 말해요. “호비식!”



나눠 먹을래?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난 국제주의자예요.
빠지는 곳이 없죠.
특히 음식이 있는 곳에는요.



여기서는 한없이 달릴 수 있어요.



제 이름 그대로 'Happy'해요!



.....하지만 한없이 달릴 수는 없지요!





어휴..... 낮잠 좀 자야겠어.

내가 이 소파보다 커졌나,
아니면 이게 작아진 건가?





저는 '차 타는 게' 좋아요.
덜 피곤하고 기운도 아낄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좋아한답니다!



너무 늦었네!
재들은 언제나 빠르단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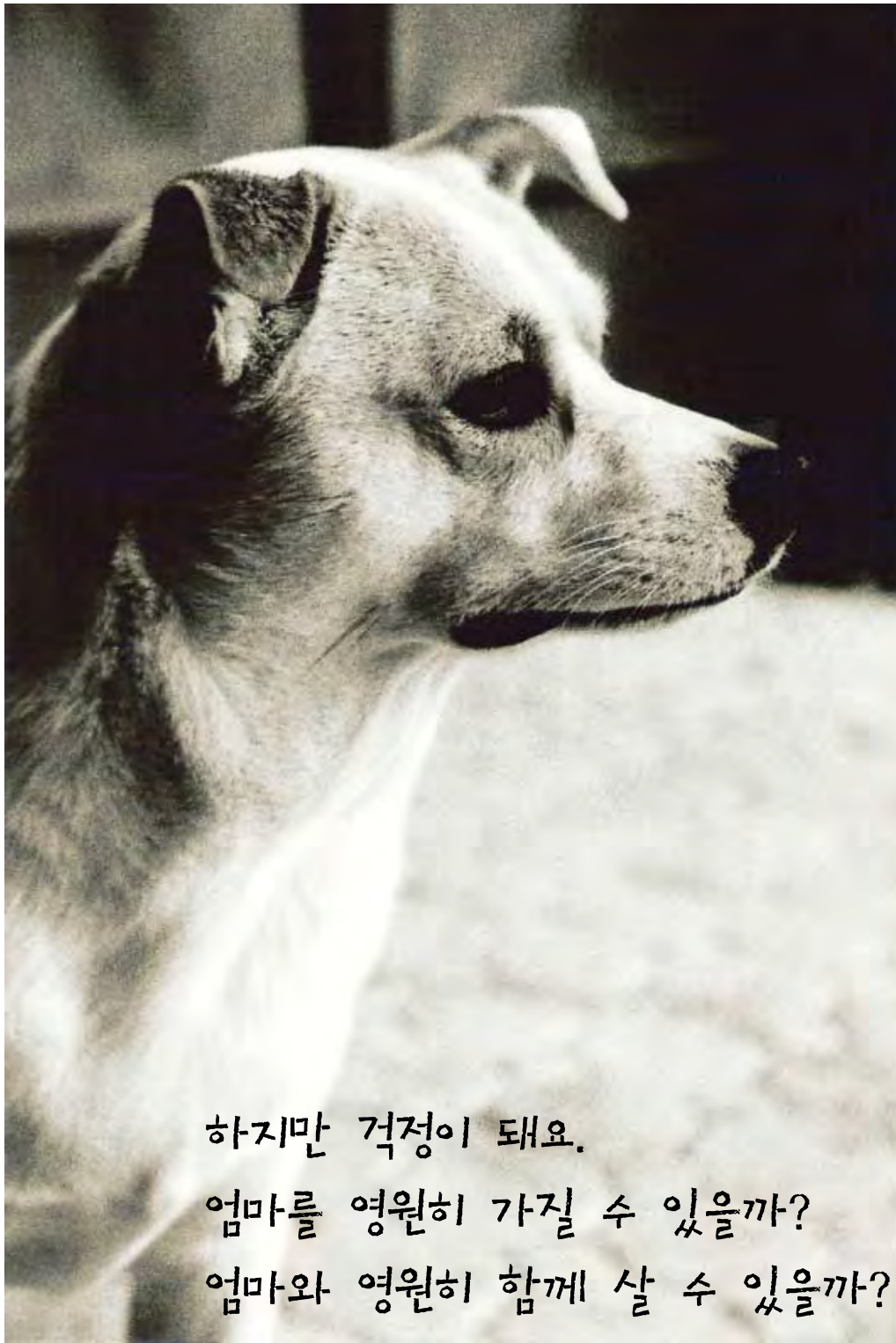
그냥 고맙다고요, 엄마!



엄마의 꿈을 지켜 드릴게요.



우리 모두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평등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걱정이 돼요.
엄마를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
엄마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떤 미래가
나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누군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냥 '지금'을

즐기는 것이 더 낫겠어.

엄마가 말씀하셨지.

반드시 나를 천국의 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야.

거기야말로 원래 내가 속한 곳이지!



야호! 나는야 첩보원.



날마다 양치질.
멋진 미소.



그리고 난 예뻐요.



사진도 잘 받아요.

양쪽 다요!





난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좋아해요.
나의 갈색 피부를
아름답게 빛내 주거든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난 언제나 예쁘고 행복해요!



좋아요.
한번
웃어 드리죠.



아이고.....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어이 Goody,
나 좀 쳐다봐 줄래?



네 눈에는 그림자밖에 안 보이니?
무슨 멋진 말이라도 좀 해봐!

채식
개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테야.



채식 개껌은
개들의
가장 좋은 친구.
다이아몬드는
여러분이 다 가지세요.
나한테는 '뼈다귀'만 주면 돼요.

잠잘 때 들려주는 이야기는
채식 개껌 다음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백설 공주가
멋진王子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난 알아요, 둘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죠!
그렇죠?

이
리
로



와
봐
!

나랑 같이 대자연을 즐기자.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저쪽 풀들이 진짜로 더 푸르다는 걸.





휴식 중인
은둔자.

온 세상이
내 것.



저쪽 풀이 더 좋지만
이쪽이 더 시원하군.



저요? 아니...오.....
제가 똥똥한 게 아네요!
저 까만 친구가
너무 비쩍 마른 거라고요!



네가 이겼다, Ben!



그래! 이기면 기분 좋지. 나도 알아!

와! Ben, 네가 말해 준 '꼬리' 이야기, 재미있다!





모두
어디 간 거야?
돌아와!
나 혼자만
남겨 두지 말고.



그에게 키스해도 되나요?



멍! 날 좋아하나 봐!



일어나야지!!





꿈..... 일어나야 돼요?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이게 전부 꿈꾸고 있는 건가?

HERMIT

이 호주 셰퍼드는 항상 많이 먹고 자주 토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후 6개월 당시 그는 몸을 돌릴 수도 없을 만큼 비좁은 둥근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데려왔을 때는 수줍어하고 인간을 두려워했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고 충직하고 보호 기질이 강하며 들러붙습니다.

별명: 음식 처리공, 헉헉이(종종 헉헉거림), 칩 어호이(털이 초콜릿칩 쿠키 색깔과 비슷해서), 루비 블루(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붉게 보이지만 낮에는 파란색임), 흥분이.

Hermit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을 때면 언제나 흥분해 어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를 쓰다듬어 주면 그는 온 세상에 여러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양 훌쩍 반한 눈빛으로 다정하게 쳐다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이 아주 사랑받고 있으며 매우

특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다른 개들과는 잘 지내지만 인간을 모두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인간을 받아들이지만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면 멀찌감치 떨어집니다. 낮을 가리고 내 뒤에 숨어서 누구하고도 접촉하려 하지 않지요. 하지만 일단 친구나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해 줄 겁니다.

Hermit는 다른 개들과 사이가 좋지만 장난감 뺏기 놀이를 하면 언제나 이깁니다. 공중에 던지거나 땅에 떨어진 테니스공을 그가 언제나 제일 먼저 낚아채지요. 설령 Goody가 먼저 공이나 장난감을 잡았어도 Goody의 입에서 우호적인 방법으로 빼낸답니다. 승자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지요!

그는 바닥이 아무리 불편해도 부드러운 침대에 올라가
기보다는 내 발치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뭐, 대부분의
내 개들이 그런 식으로 들러붙기는 합니다만!

만약 인간이 신께 이처럼 헌신한다면 분명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허락 없이
이 문으로
들어올 생각 말아요!



아무리 내가 다정해 보여도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사실,
선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해봤어요.





게다가 수영은.....



완전히 녹초로 만들지요!

Goody, 무슨 소리 못 들었냐?



아~하! 우리더러
바로 건네 달라고 하는군!



즐거운 '벳놀이'였어.

내가 제일 커요.



그리고 제일 멋지고!



날 보면 어떤 **유명** **모델** 개가
생각나시나요?

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난 모델처럼 생겼어요.
'내 생각'엔 그래요!





뭐, 어쨌든

사랑스러운 애완견이지! 이의 있어?



아마도..... 아마도.....



난 전생에 호랑이였나 봐!



.....아니면멍멍이.



아니지..... 늑태였던 게야!





사후 세계가
있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우리 가족들과
세세생생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아.

모든 과거와 미래에 대해
그 누가 답해 줄 수 있을까?



고요히 앉아 명상해 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는군!



고독보다 좋은 것은 없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어..... 영원히.



스승님이 말씀하셨지. “명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내겐 아무 문제도 없는걸!
엄마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가만.....

내가 어느 쪽에서
왔더라?

?



길을 잃었나 봐!.....



숲 속에선
날이 금방 어두워지는데.

여긴 어디지?



도와줘요!



스승님! 엄마!

집에 데려다주세요!





땅 위에..... 대체 이게..... 뭐지?

좋아, 침착해!

어디 보자……

모래처럼 보이는데,
모래 같은 느낌은 아니네!
발에 달라붙어서는,
꽂꽂 얼려 버리잖아!



그래도 기분은…… 좋~은데!
상쾌하고 차갑고…….



Ben, 달리기 시합하자!



어이쿠!



운동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는데.....
헉, 헉..... '너무' 따뜻해졌나!



휘유! 휘유..... 나도.....
할 만큼..... 했어..... 정말이야!



눈 위에선 정말

어떻게 명상해야 하는 거지?

한번 해보아야겠어.....



추우면 명상하는 동안
계속 깨어 있게 된다고들 하니까.



추우니까 됐어.

그런데 좀 꾸벅꾸벅
조는 것 같네.

꾸벅꾸벅

꾸벅꾸벅

꾸벅꾸벅

오! 오!

“자보다”



“사랑이 꽃이 없어”



이건 그냥 집이 아니라,

나의 천국이라고!







두 사진 속 셰퍼드에서
다른 점 네 가지를 찾을 수 있겠어요?





찾았으면 개 보호소에 있는
비슷한 개 한 마리를 자신에게 상으로 주세요.

다들 정신없는 사이에
요거 몇 개 먹어 볼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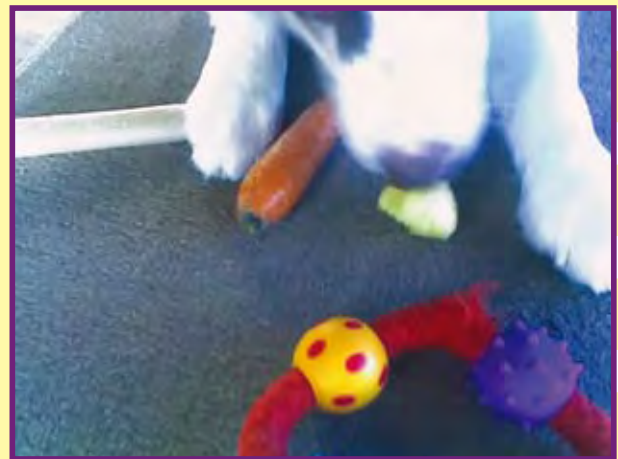


? ? **맞혀 보세요**

누가 뭘 먹고 있는 걸까요?



우린 부엌 야채 바구니에서
꺼내 먹어요. 언제나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답니다!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생감자를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어요!



아-하! '현행법'으로 딱 걸렸네요!
하지만 감자는 사라지고 없는걸요.
증거가 없죠! (나와 Lucky가 먹어 버림)



그런데 당근은.
으흠!..... 사실 이게 세 개째예요.



솔직히 난 네가 좋아, Goody!



우리가 너무도 다르긴 하지만.



Her, 나도 너 좋아해. 네 그림자도.



어이! 카메라!

푸른 눈의 호주 셰퍼드를
본 적 있는가?

헉! 헉! 헉!

너 혼자 달려, Goody.
난 좀 쉬어야겠어.



이 계단은 올라가기가 힘들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개에 대한 배려심이 없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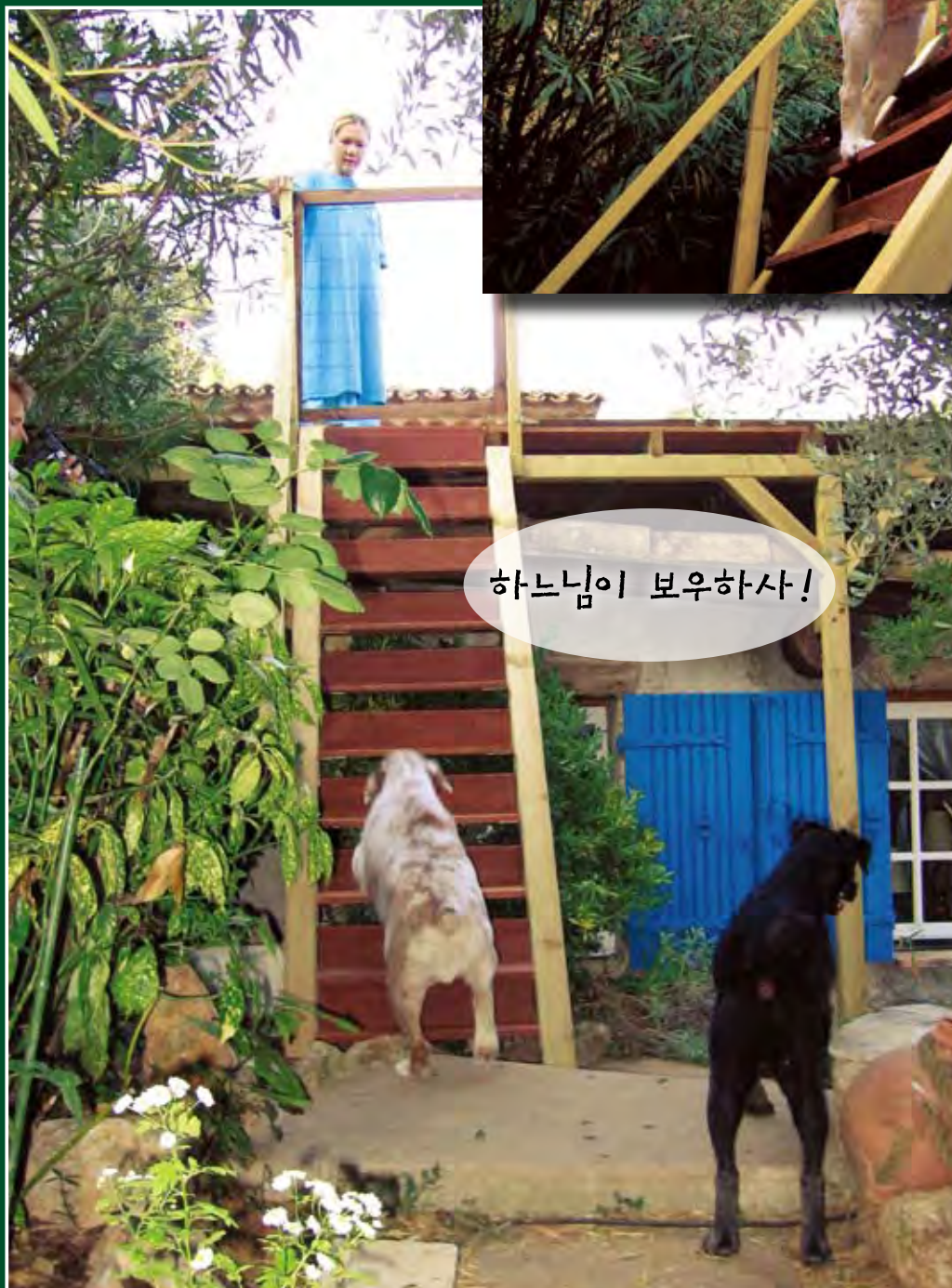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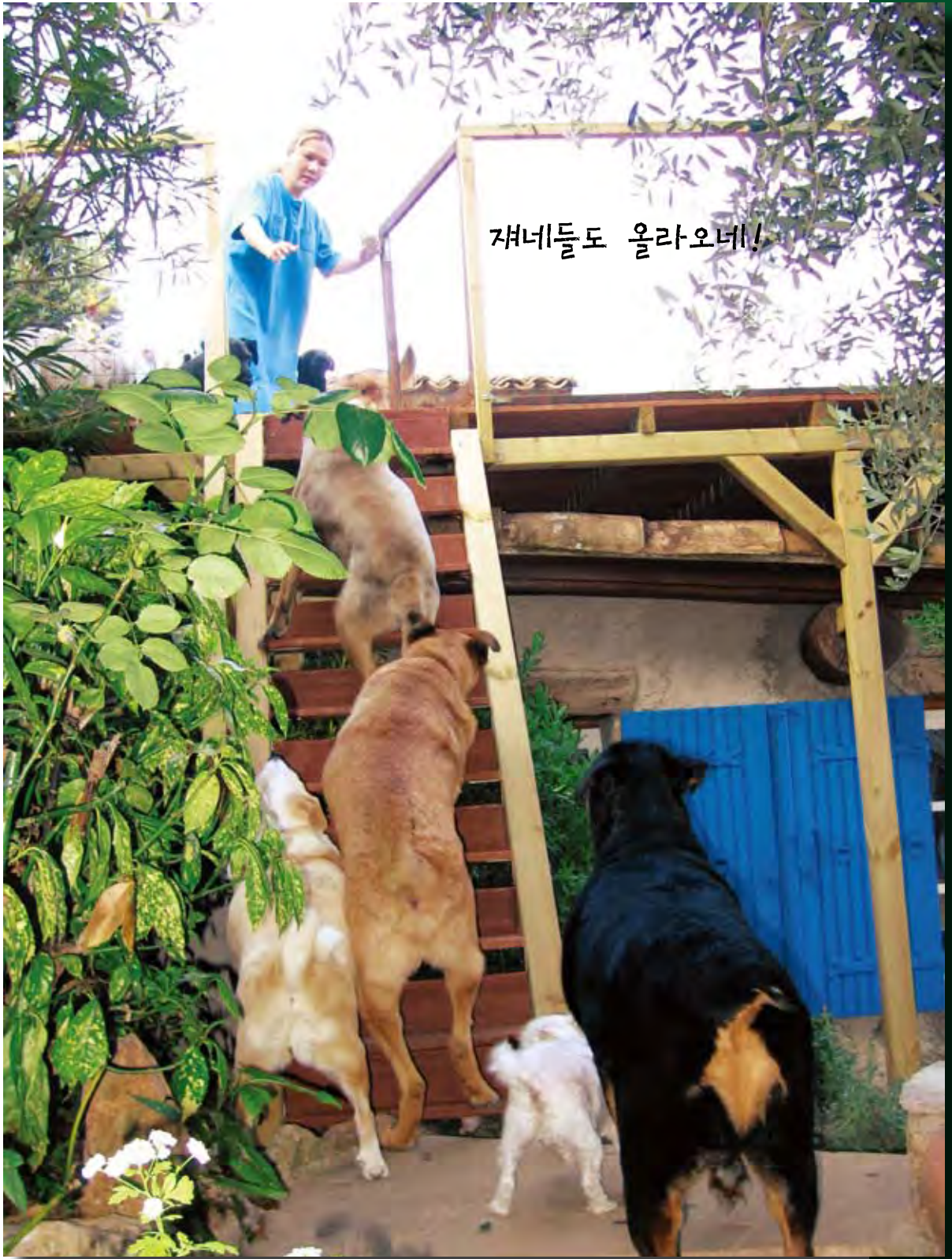
하지만 '엄마'가 저 위에
있다면 올라갈 거야!
—흠, 정말 할 수 있을까?

휴~! 성공이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쟤네들도 올라오네!

점심 먹는 데가 좀 많이 부족대지요?



맞아요. 난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이런, 내가 30파운드만
더 가벼웠더라면.....”

Happy가 뭘 마시고 있는 거지?



뭔지 좀 보자고!



대기자가 정말 많군.....

하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는 있어.
남은 땅콩은 다 내 차지니까!

잠잘 때



듣는 듣는 이야기는.....

가장 멋진 시간에 듣는 이야기.



이래서야 오늘 밤 엄마가 어디서 주무실 수 있겠어???



“엄마,
‘제’ 침대로 오셔도 돼요!”
(사실은 엄마 침대)



“내가 댄 데로 가야 될 것 같구나!.....”



.....바닥도 편해. 고마워!”



그는 좁은 사각 우리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뼈만 앙상한 상태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버려질 처지라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어서 자기 배설물을 먹어야 했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심하게 아파서 두 달 동안 집안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Goody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림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는 사랑이 많고 충직하고 보호 기질이 강하며 들러붙습니다. 또 ‘안기는’ 걸 좋아해서 쓰다듬어 줄 사람이 필요하면 귀여워해 달라고 마구 ‘괴롭힐’ 겁니다.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무릎 위에서나 무릎 아래서 ‘영원토록’ 기다리지요.

별명: 그림자 사냥꾼, 사무라이, 초능력자, 침흘리개(음식을 구걸하지는 않고 멀리서 군침만 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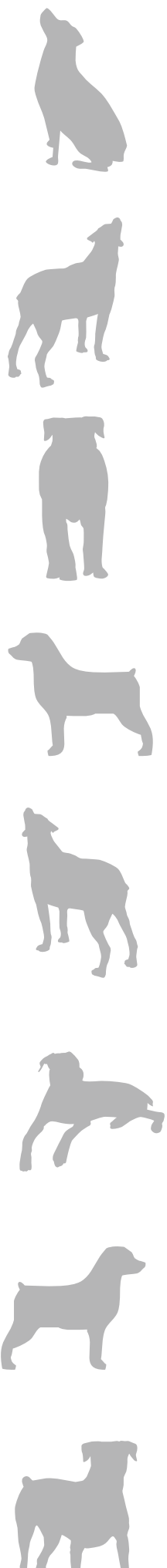
그는 가족들을 신사적으로 대합니다. ‘만형’ Benny한테는 결코 ‘짓어서 쫓아 버리는’ 법이 없으며, Hermit에게는 자기 입에 있는 것이라도 원하면 다 줍니다. 음식이나 장난감

을 놓고 다투는 일이 없지요. 하지만 집 식구들이 들어오면 언제나 공양물을 가지고 환영해 줍니다. 그런 물건은 슬리퍼나 베개, 전화기나 리모콘 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의 애정 어린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지요. 그는 너무나도 예민해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탐지해 그에 따라 반응하며 그 사람에게 한결같이 살랑거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로트와일러는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귀염둥이입니다. 사람을 귀찮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그림자나 나무 그림자하고만 놀든가 장난감에 대고 혼자서 으르렁거리지요. 가끔씩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끈질기게 들러붙어 원하는 바를 이루고야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혹 정말로 그가 곁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살그머니 자리를 피해 줍니다.

그는 씩씩한 사나이이지만 또한 아주 달콤한 녀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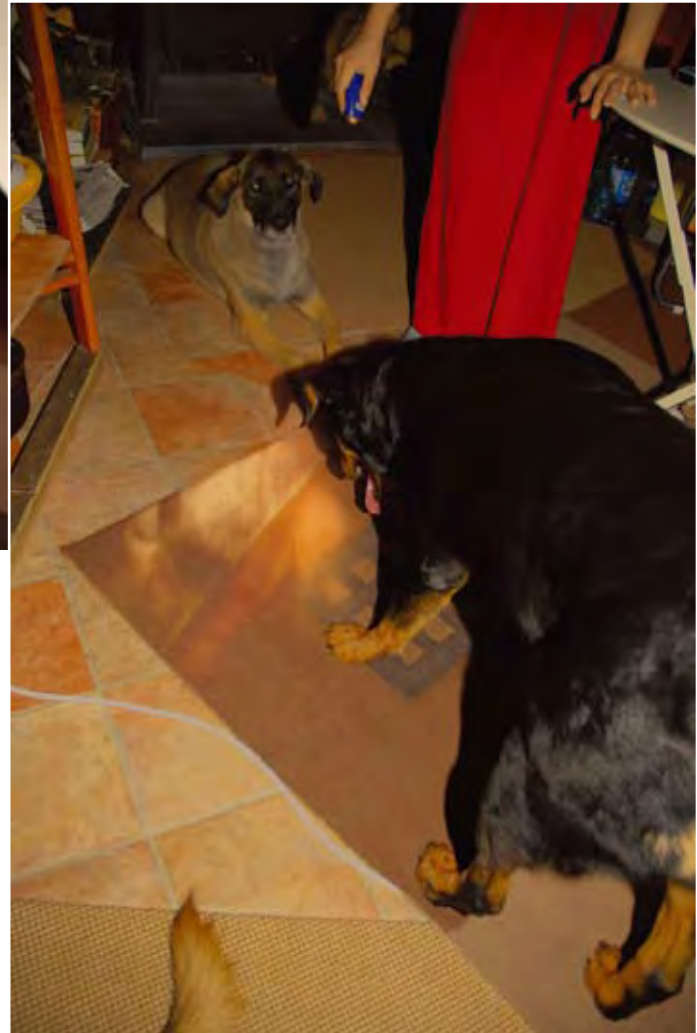
우린 확실히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랍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일거리가
뭘 줄 아세요?
(힌트: 손전등을 가지고 하는 일임)



맛있어요! 그림자 잡기죠!
전 그림자 사냥꾼이에요!



상으로 여러분의 개를
안아 주고 그들의 키스를 받으세요.
개가 없지만
입양할 형편이 된다면
어서 가서 입양하고
나의 영웅이 되세요!
브라보!

나는야 그림자

사냥꾼



자세 잡고!
준비!
잡았다!

살살이



그림자가 어디로 갔지?

우리는.....



좋은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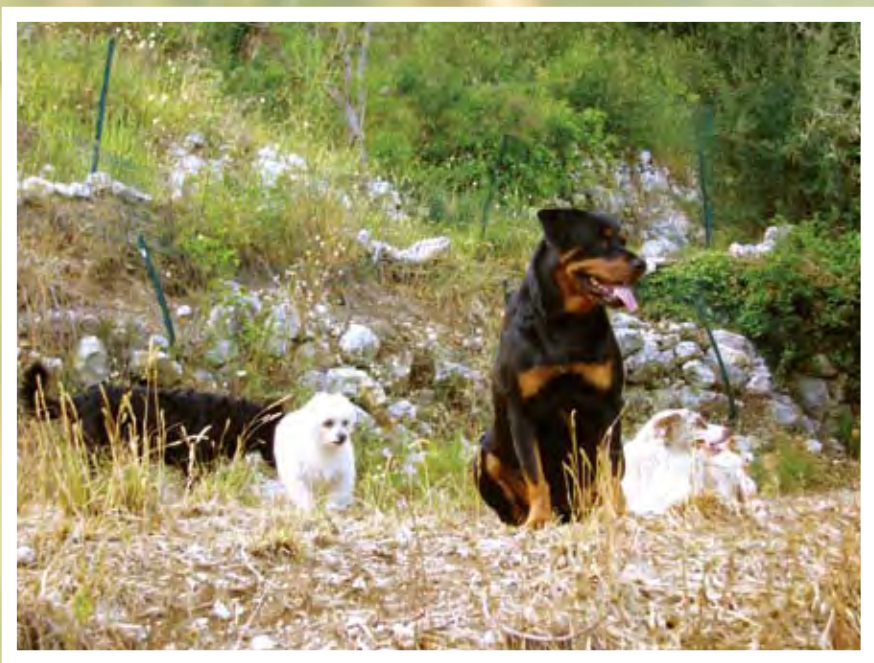


사랑이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네 눈에는 그림자밖에 안 보이지!”

“가만히
좀
있어.....
그림자랑 놀게!”



나무 밑엔 그림자가 하나 가득.



그런데 내 기운을 속 빼는군!
왜 여름인 거야?
열이 식을 기미가 도통 안 보이잖아!

그림자 쫓아다니는 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야.



네 곁에 있으니
좋다.
예쁜 녀석!



네가 낮잠 자는 동안
내가
지켜줘도 되겠니?



음,
물론이지,
가장 사랑하는
친구야!





스승님이 말씀하셨지. “나눔은 좋은 미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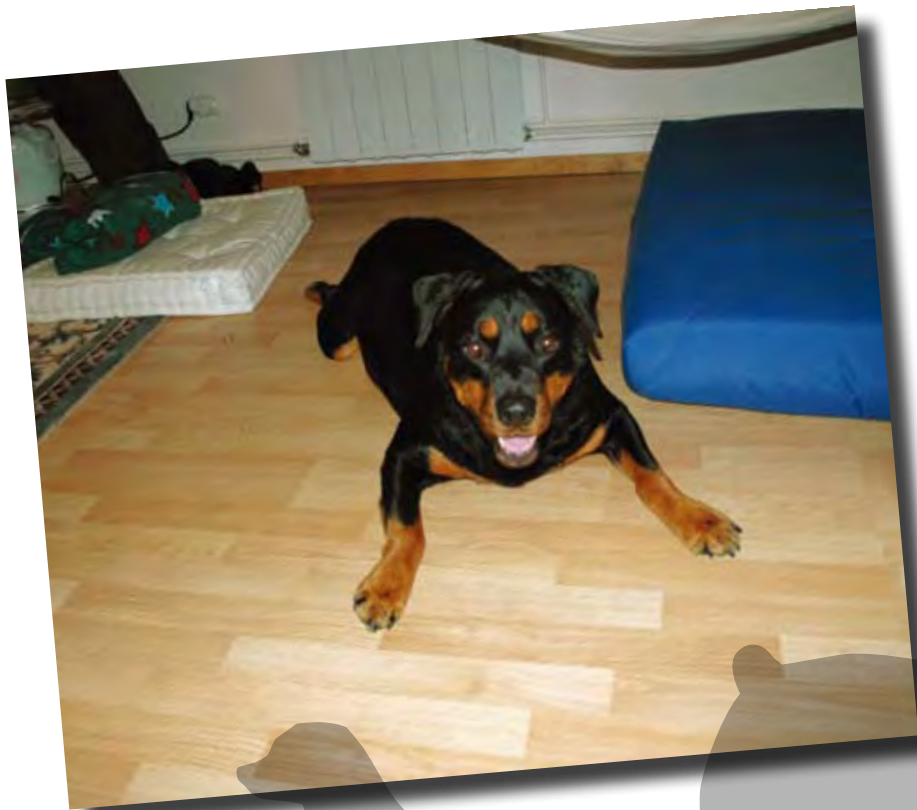
맞혀 보세요. 제 미소가 어째서 이토록 멋진가요?



i 피아이아다인
'포이곰개 1너우기꾸요 1어기어미 : 꾸다인



그림자 줄 사람?





집에 있는
그림자가 좋아.



밖에 나가 한가롭게 걷는
자유로움도 좋지.
멋져!

그런데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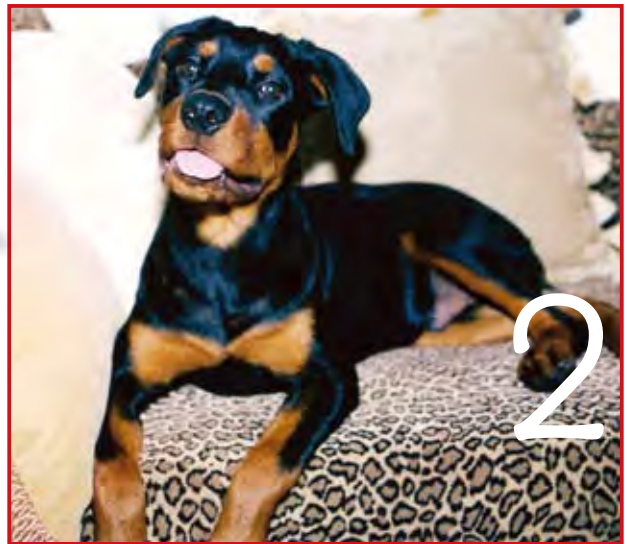
지금부터는 엄마를 따라가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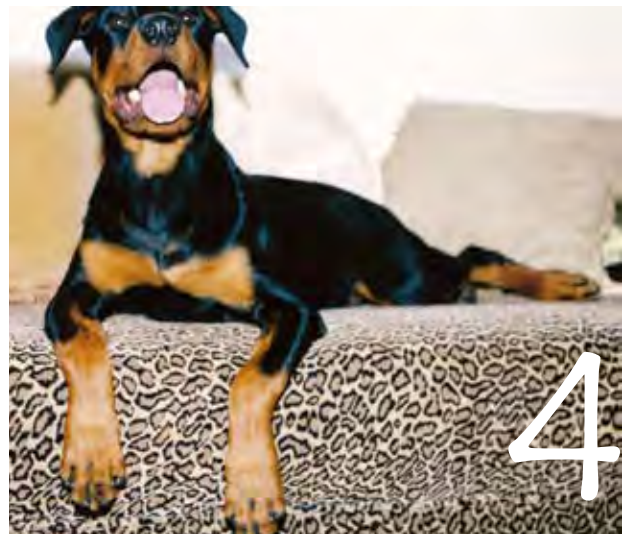
‘웃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요?



아니면..... 요렇게?



아~하!
알겠어요.
활짝 웃어 줄게요.





무섭게 보이죠, 그렇죠? (다 저 사진사 잘못이야!)

좋아요! 송곳니를 감춰 줄게요. ❤️







‘치~즈’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이번엔 이빨을 보이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내 사진을 무섭게 찍었잖아요.
그 사진 정말 싫어요!



사진은 다 찍은 건가요?

이 강아지는 편안히 자세 좀 풀고 '열 좀 식히고' 싶을 뿐이라고요.





이 나무는 살아 있고,
저 나무는 죽었군.
이런 덧없는 광경 속에
내가 놓여 있구나!
진정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나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메롱!

상관없어!





Hermit, 그림자 좀 보이니?

내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데!





이봐 Hermit,

머리 좀 이리저리 흔들어 볼래?

네 그림자 가지고 좀 놀아 보게. 어때, Her?

때로는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정말 좋은 일이야,

누군가가
있다는 건.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이
있다는 건.



몸을 숨겨서
열 좀 식힐 구석을 찾고 있는데.

여기가 좋겠다!
그림자 쫓아다니기엔 딱.





여기 '안전한' 것 같아!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테니
'잔디 걸기' 하자고 안 하겠지!



'들켰어요.'
그래서 여기 있지요!
집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저건 그냥 ‘개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그렇죠, 엄마. 확실해요!

“그래! 그래! 내가 젖다!
빠져나갈 곳이 없잖아!”



개껌이
엄마한테는 자유를,
나한테는
얌얌.....



개껌
하나만 더 주세요.
얌전하게 굴게요!
예, 엄마!



나 귀엽지 않나요?



나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은요?
내가 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집에 있는 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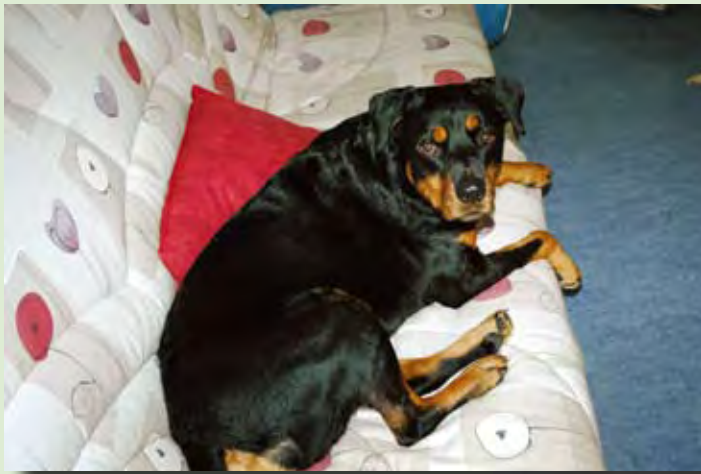
.....친구들이랑 함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젠 외롭지.....



.....안아요!



.....그리고 소파는 영혼에 좋아요!
게다가.....



.....왜 히말라야에 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아! 하지만
고생하는 보람이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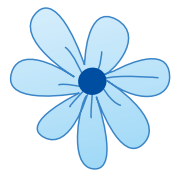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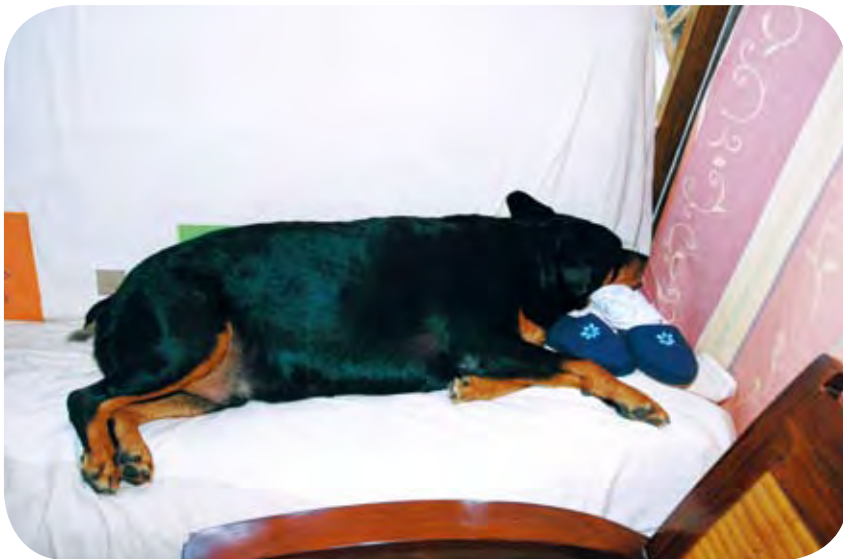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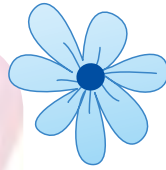
내가 좀 너무
무거운가?

너무 높군.
사다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 도도한 그림자를
어떻게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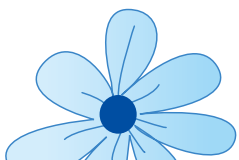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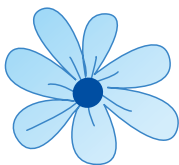




엄마가 집에
안 계실 때는



최소한 엄마 냄새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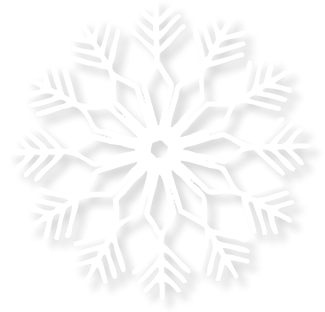
모든 게 환상이긴 하지만
확실히 춥긴 춥구나!
뭐? 눈이 내린다고……
벌써?
이런!




날씨하고는!

햇볕이 나는데 눈도 내리다니!

내 그림자를 어지럽히잖아.



A black and tan Rottweiler dog is the central focus, sitting upright in a snowy landscape. The dog has a black coat with tan markings on its face, chest, and paws. It i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calm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a soft-focus scene of snow-covered ground and evergreen trees, suggesting a winter setting. The lighting is natural, highlighting the texture of the dog's fur and the snow.

여기 서 있기만 해도
이상한 기분이야.



게다가 가라앉고 있다고!
이거 빠지면 못 나오는 건 아니겠지?



빨리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해!

자, 스승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얼른 발을 움직이는 게 낫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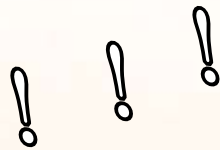


그런데
어디로 가지?
사방이 온통
눈뿐인데!



요가 수행자들은 히말라야에서 어떻게 명상하는지 모르겠군!!!
어떤 이들은 옷도 안 입는다던데. 스승님은 그들이 '나가(Naga)'라고 불린다고 하셨지.
하지만 여기 이대로 더 있다가는
난 '나다(Nada)*'가 될 거야!

*주: '나다(Nada)'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스페인어임.



요가 수행자들이 따뜻한 재킷을 입는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나한테는!.....



BOYO

Boyo(BoBo)는 헝가리 태생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냉담하고 서먹서먹해하면서 잘 놀라곤 했습니다. 또 구석진 곳을 좋아하고 천둥을 무서워합니다. 나를 처음 봤을 때는 곧바로 달려와 키스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는 잘 지내고 있고 내 방에서 자는 걸 좋아합니다(다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는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머리가 몸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거든요(비쩍 마른 데다 균형도 안 맞았음). 그리고 희끗희끗하고 듬성듬성한 털 사이로 피부가 보였습니다(그때는 영하 30도는 될 법한 겨울이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고 충직하고 보호 기질이 강하며 들러붙습니다!

Boyo는 매우 사랑이 많고 감사할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천둥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천둥이 칠 때마다 내 방으로 달려와 숨고는 그날 하루는 어떤 음식을 줘도, 설령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줘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에 비바람을 피할 집도 없었을 땐 어떤 심정이었을지 나는 당최 짐작도 안 갑니다!

그는 내 곁에 최대한 가까이 눕고 싶어합니다. 그게 자기 소파, 베개, 또는 포근한 담요까지 포기하는 걸 의미해도 말입니다. 그는 진정한 신사라서 종종 친구인

Lady에게 먼저 먹도록 양보하거나 자기 몫을 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개껌까지 양보하지요.

그는 평소에는 예의바르고 조용하며 인간에게 지극히
다정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집에 새로 들어온 개가 지나
치게 소란을 피우면 마른 근육을 과시하며 질서를 회복
시킵니다.



‘예전 모습’

BOBO

저는 Boyo예요(엄마는 다정하게 'Bo'나 'BoBo'라고 부르곤 하시죠). 예전엔 이런 모습이었어요(내 모습이 어땠는지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네요). 추운 우리와 쇠사슬, 날이면 날마다 얼어붙은 음식만 먹었던 생각만 납니다. 털도 많이 빠져서 살갓을 제대로 덮지 못했고, 불쑥 튀어나온 머리 부분이 유난히 크게 보여서 바짝 마른 내 몸에서 분리돼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저분한 구덩이는 눈, 비,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영하 30도나 되는 추위도 막아주지 못했어요.

‘현재 모습’



지금은 이렇게 먹었어요.

제 털은 북실북실해졌고 더 윤기 있어졌어요.
은몸은 완벽하게 균형 잡혔고요.
제 마음은 완전히 행복해졌고.....
제 영혼은 고양되었답니다.
그리고 삶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어때요,
아주멋진.....



“아침 식사를 침대에서 하는 건?”



밖에 천둥이 쳐서
기분이
너무나도 안 좋을 때!





에이, 오늘은
룸 서비스가 늦는군!

다 먹었어. 물!



이분은 저의 인간 친구예요.



내 사랑 이기도 하죠!



여기는 내 정원이에요(다 같이 쓰지만 내 것임).



그리고 내 친구인데 까맣지만 착해요!

누가 이런 날씨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깥에서 지내는 게
어색해요.



내가 하늘을 지붕 삼아
헝가리의 겨울 바깥 날씨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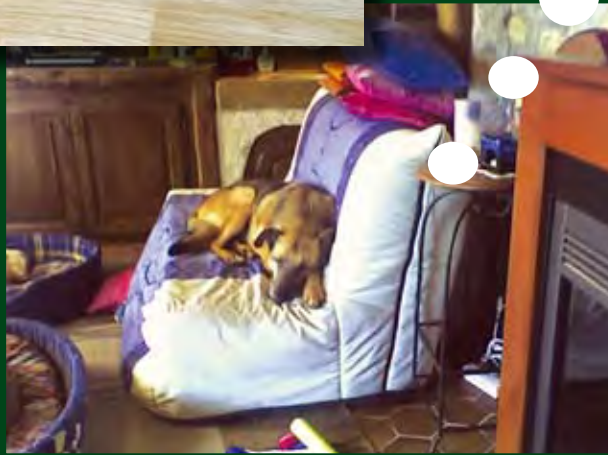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공 언 얼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잊어버렸어요.....



전 바깥이 싫어요.
너무 오래 있는 건 싫어요.



내 집이 좋아.
내 소파가 좋아.



고 이윽글 **얼**겅지요!





전 제 카펫이 좋아요.
여기 있는 건 다 좋아요.

맛있는 음식도.



우정도.



그리고 엄마의 관심과
집안의 이 따뜻함도.





속지 마세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싫어요.
밖에
너무 오래 있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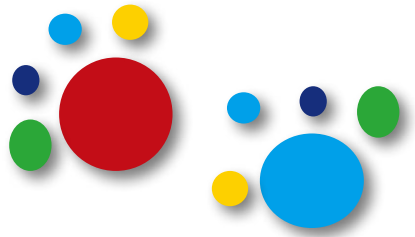
특히 비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칠 때는!
곳은 날씨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무서워요.
저는 아주 예민해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엄마는
Boyo를 돌봐 주세요!)

집!

여기야말로 천국.







내 결혼 언젠가

정말 친구들이 있다네

여기가 나의 집





이제
사랑받는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라는 걸
확실히 알겠지요.





PomPom!



네 개껌 다 먹을 수 있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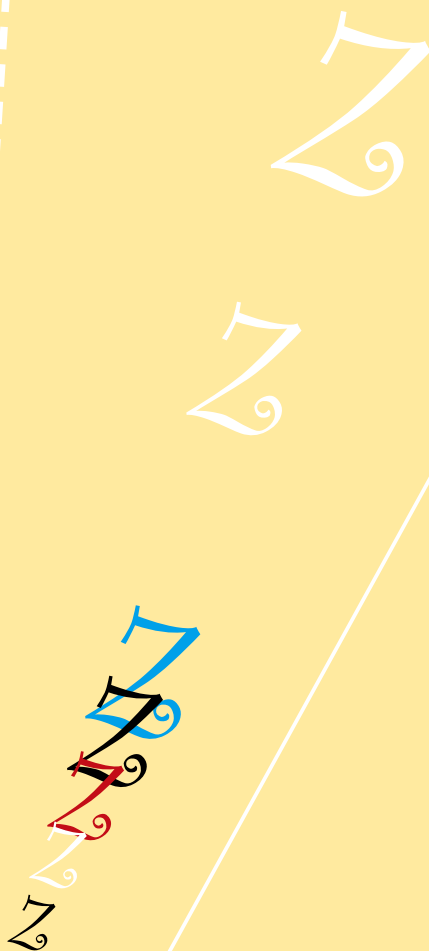
.....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뭐.....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다고!



명상?





명상?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난 소파가 더 좋아!



그래, 여기 말이지!
내가 말한 게 이거라고.

고급스럽군!
따뜻하고 무늬도 멋지고.



분명 비쌀 거야.



하지만 엄마는
바닥에서
명상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야
만약의 경우에도.....
(무슨 뜻인지 알죠?!)
너무 심하게
넘어지지 않는다고.





내 평생
이런 이불은
써 본 적이
없었어요!



하얀 눈 색깔인데
아주 따뜻해요!
전 정말
무지 좋아해요.
고마워요, 엄마!



그래도 궁금하네.
소파에 앉아 명상해서

부처가 된
사람은 없었을까?





가끔 숨는 걸 좋아해요.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을 피하는 거죠.
오, 전에는 숨을 데도 없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장담은 못 하겠지만!)



하지만 시원하고 안전하군!



HEART HEART

그래도 (가끔)

해피에게

내 비밀 은신처를

양보해 줘요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겨울이면 불을 피우는
진짜 벽난로가 있어요.

모두 함께 그 주위로 빙 둘러앉는데

오! 지상 천국이 따로 없어요!

ON EARTH!

LADY

Lady는 힘세고 정이 많은 골목대장입니다! 헝가리 태생인 그녀는 거기에 있을 땐 털이 전부 꼬이고 사방팔방으로 헝클어져 있어서 지저분했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많고 충직하고 보호 기질이 강하며 들러붙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Lady에게 앉으라고 했더니 그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트레일러에서 함께 자고 나서부터는 좀더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이젠 나를 볼 때마다 따로 명령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내가 귀여워해 주거나 맛있는 걸 주면서 ‘착한 아이’라고 말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개들이 그 주변에서 얼마나 난리를 피우고 시끄럽게 굴든 간에 그녀는 ‘착한 아이’임을 자랑하는 자세로 조용하고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녀를 안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데 그 ‘착한 아이’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사랑스럽습니다. 그녀는 매우 씩씩하지만 내가 쓰다듬어 줄 때면 네 다리를 하늘로 뻗거나 다른 자세를 취하며 아기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지시를 아주 잘 따릅니다. 난 이 여자애를 사랑하며 나의 공주님, 나의 쿠키, 나의 초코(초콜릿 색이라서)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아주 순해졌고 점점 더 상냥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겁니다!

헝가리에서 온 Lady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



Lady: 쿡키 선장

남자애들처럼 다리를 들어올리고 등을 구부림.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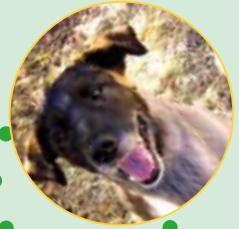
부드러워 보여도

가차없음.

그녀에게 함부로 굴지 말 것.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상책.

뭐요!!.....이게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예쁜 미소란 말예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카메라 보고
웃어 본 적이 없었는걸요!
전에는 웃어 본 적이 없었다고요.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전에 어땠었는지 기억하지요?
기억을 되살려 줄 테니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난 눈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헝가리에선 더 그랬죠.
거기 겨울은 언제나 춥기만 해요(영하 30도까지 내려가지요).



이게 이전 내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서 길고 헝클어지고 냄새 나는 털까지 있었죠!
'이발'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내 왼쪽 눈은
찢어져서 영원히 실명했어요.
엄마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날카로운 것에 찢린 듯이' 아프시대요!

전 실내가 좋아요.



바깥도 좋아요.





인간의
부드러운 손길도
좋아해요.



전
사랑 그 자체를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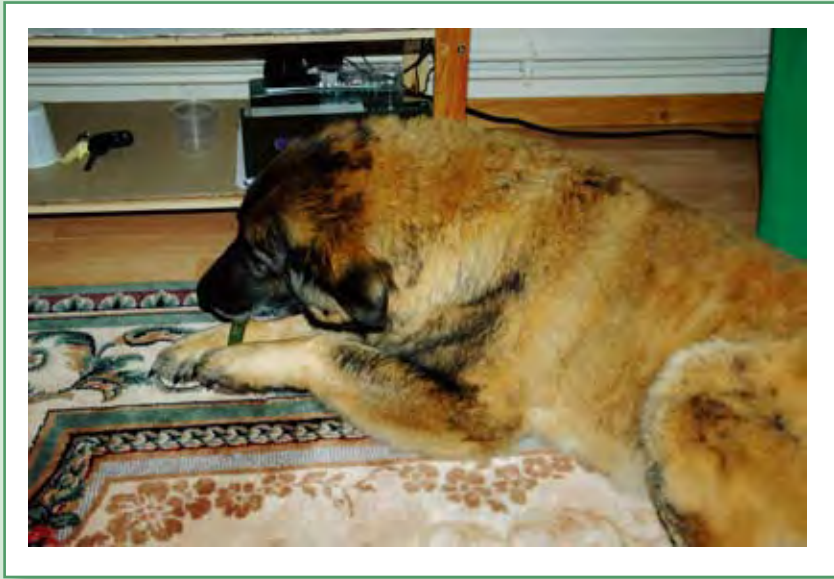


전 안마 받는 걸
좋아해요.



아노!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중이에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쨌든
▶
삶은 '멍멍'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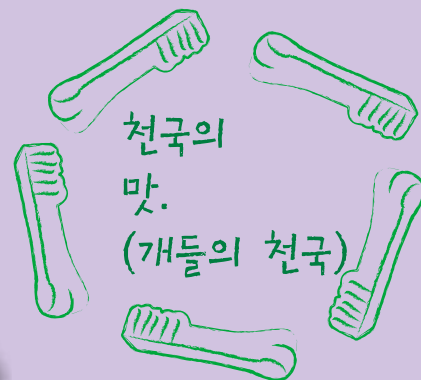




이건
정말



천국 갈아



천국의
맛.
(개들의 천국)



엄마,
하나
더
주실래요?

물론,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더 좋지요.



음, 하지만.....
개껌은
정말 정말
맛있어!





삶은

‘멍멍’한 것.....



.....여러분이
이루어 내는 것만큼!
내 생각엔!





봐! 나도 너희 남자들만큼
다리를 높이 올릴 수 있다고!

그들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난 어떤 남자 못지않아!



나, Lady는
이곳의 남자들이 내 통제 하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너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정말 '꽤적해!'
리얼 오글



쾌적하다는 건..... 깨끗한 실내와
붉은 타일 바닥 같은 것!

개와 나누는 대화



난 맛있는 게 좋아요.
난 우리 집이 좋아요.



난 우리 여주인이 좋아요.
그녀도 날 사랑해요!



난 내 정원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해요.



이 모든 걸 사랑해요.
누군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또.....



난 그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POMAS

Pomas는 헝가리 태생입니다. 그는 전에 부끄럼이 많고 서먹서먹해하고 큰 개들에게 쉽게 주눅들곤 했었지만 이젠 아닙니다! 지금은 강해지고 자신감 넘치게 되어서 어떤 덩치한테도 맞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는 사랑이 많고 충직하고 보호 기질이 강하며 들러붙 습니다. ‘포옹’을 바랄 때는 다가와서 조용히 무릎 위에 머리를 얹는답니다!

별명: PomPom, 신사, 착한 녀석.

Pomas는 내 개들 중에서 가장 조용합니다. 완전 귀염둥이지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늘 만족할 줄 알고 자기 눈에 띄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사랑만을 줍니다.

때때로 기회를 잡으면 조용히 내게로 와서 내 무릎 위에 가만히 자기 머리를 올려놓고선 애정을 ‘리필’해 갑니다. 다른 개들이 똑같이 해 달라고 오면 떠나고요.

그는 전에 Boyo와 수컷 간 대결을 벌이긴 했었지만 데굴데굴 구르거나 녀석에게 뽀뽀하는 방식의 인사를 통해 언제나 Boyo에게 사랑을 표시합니다. 물론 그는 인간들도 사랑합니다.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요. 그의 마음속에서 인간이 사랑받고 공경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평화로운 공존'입니다.



POMMAS



그 추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어요!

전 Pomas예요. (엄마는 애칭으로 'Pomy'나 'PomPom'이라고 부르시죠.)

실물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사진 때문에 얼뜨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엄마가 절 데려오기 전에 모습이 더 영망이었어요. 털은 지저분하게 헝클어진 데다 겨울이면 차갑게 젖은 발로 하루 종일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종종 Boyo의 우리 위에 올라가 잠깐씩 몸을 말리곤 했답니다. 제 개집은 문이 없어서 바깥이랑 온도 차이가 나질 않았거든요. 특히 섭씨 영하 30도가 되기도 하는 겨울에는요!





엄마가 오셨을 때 제 처지를 얘기했더니 엄마는 제게 더 좋은 곳을 지어 주려고 하셨어요. 모두들 집 짓는 걸 도와주고 싶어했지요. 그런데 도 전 온종일 추웠고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그 추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운 밤에는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늘 사슬에 매여 있었던 그전에는 더 심했었는데 그 다음에 만난 이 사람들은 훨씬 마음씨가 좋았어요. 그들이 절 풀어줘서 돌아다닐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헝가리의 겨울 날씨는
혹독해요. 전 그냥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엄마에게 “우리 개
들은 추위에 익숙합니다.”라고 말
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물었다면 우린 그 차이
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며칠 뒤
에 참다 못한 엄마가 나와 다른
두 마리를 당신 집으로 데려갔어요.
임시로 머물고 있던 작은 트레이일러
였지요.

그곳은 우리에게 궁전 같았어요. 따뜻한 히터에
솜털로 덮인 새 침대들, 따뜻하고 깨끗한 물이
있었고, 우리는 엄마의 작은 침대 옆에서 자게
되었죠. 엄마는 시자들에게 식촛물과 물수건으로
우릴 씻긴 다음 방으로 데려오라고 시키셨어요. 엄
마는 우리를 아주 열렬하게 환대해 주셨고 우리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어요! 영원히 머물고 싶었답
니다. 엄마는 또 우리에게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주셨어요!





매일 밤, 일이 끝나고 나면 엄마는 우리 안으로 들어
당신 음식을 나눠 주거나 두툽한 토스트 빵조각에 버
터를 녹여 먹여 주셨어요! 우리 마음도 그때마다 녹아
내렸지요. 얼어붙을 것 같은 겨울 밤에 먹는 버터 바른
토스트는 여태껏 먹은 것 중 최고였어요!

그후로 엄마는 어딜 가든 우리 모두를 데리고 다니셨어
요. 우리에게 대한 대우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요. 삶이
더욱 즐거워지고 있지요!.....



전 한없이 행복해요. 제 몸에 난 흉터는
제가 기억조차 하기 훨씬 이전부터 거
기 있었어요.

목욕을 하고 털을 자르면서 그 흉터가
나타났는데, 엄마는 그걸 처음 봤을 때
울면서 저를 꼬옥 껴안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마음에 새겨진 상처 자국은 이미 다 나아갔으니까요!

전 그녀의 개가 되어 기뻐요.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멍멍이랍니다! ♥



A photograph of a room with a bed and a dog. The bed has a green and blue striped pillow and a green floral pillow. A dog is visible in the foregrou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room has a patterned rug and a wooden table.

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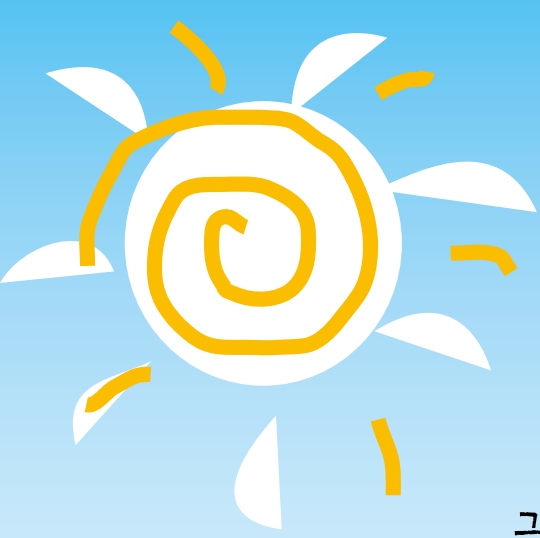
엄마는

큰스승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줬어요

우리가 만나기 전에 엄마에게 이미 다섯 마리의 개가 있었지만 전 아무렇지 않았어요. 모두들 충분히 사랑 받고 있거든요. 또 저는 그들 모두와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 로트와일러인 Goody하고 친하죠. Goody는 아주 많이 깨달아서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만나기 전부터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는 엄마가 큰스승이니 존경을 표해야 하며 동물들에게 아주 잘해 주신다면서, 자기는 엄마가 몹시도 그리운데 볼 수 없으니 우리더러 같이 있을 수 있어서 행운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줬어요. 그와 다른 넷은 '엄마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우린 모두 엄마의 트레일러 밖에 모여 한 줄로 서서 인사를 했어요. 엄마는 Goody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을 아시곤 아주 기뻐하셨어요. 또 우리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면서 보답으로 당신 점시에 있던 맛있는 간식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 그녀와 함께 지낸 낮과 밤은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 같아요!

우리 모두 '엄마'를 정말 정말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할 거예요.



이제, 저와 제 친구들은 엄마하고 또 다른 개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우리에게 비타민도 있고 간식도 있고 따뜻한 침대와 폭신하고 깨끗한 소파도 있으며 멋진 정원도 있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삶이 이보다 더 멋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늘에 감사드려요. **세상의 다른 개들도 우리와 같은 환경에 살면서 사랑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체중 관리가
필요하겠어!



계속 먹여 대시면!



그냥 근처에

‘쇼핑’하러, 안 되나?!

운동은 좋은 거지—
건강과 날씬함을 유지해 주잖아!



걱정 마.
나일론 뼈다귀 물고 돌아올게!

이런 모습에 신경쓰지 말자.....
여름이라
털을 좀 깎은 것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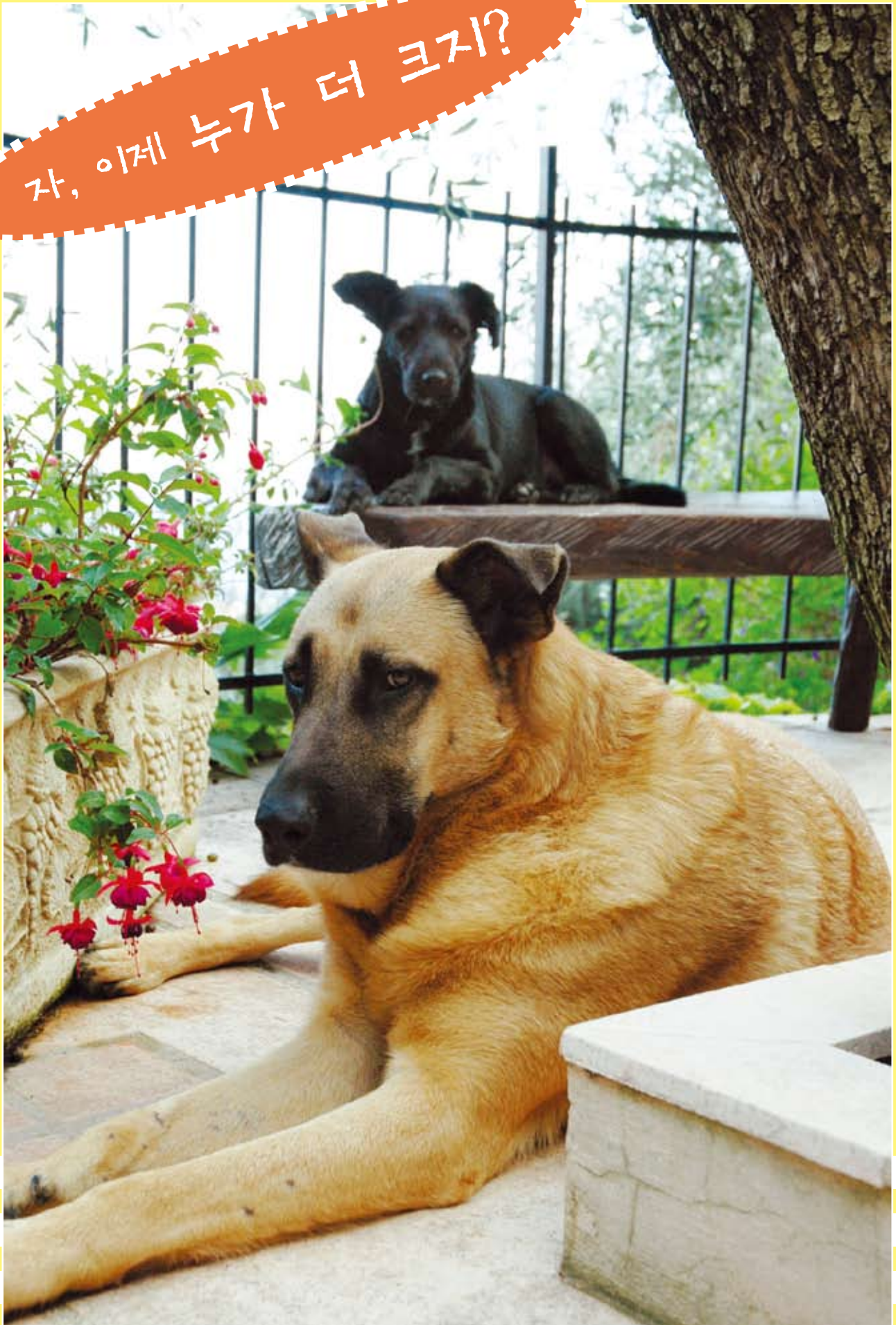
난 예전과
똑같이 참신한 나야.
나는 Pomi라고!





좋아, 망아지!
방금 '석탄 인부'라고 했냐?
저 친구가 덩치가 더 큰 건 맞지만
내가 더 까맣다고!
너 같은 녀석은 하나도 안 무서워!.....
바깥으로 나갈래.....
.....한판 붙으러?

자, 이제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빨리 씹는지 보자, '눈송이'!



내가 그를 '눈송이', '흰 쌀', '흰둥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 친구예요.

우리 개들 사이에 인종 차별 같은 건 없습니다!

이 녀석 역시 마찬가지로요.
난 그를 '덤치'라고 부르고
그는 날 '깜씨'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우린
아주 사이가 좋아요!





이곳 삶은 개들의 천국.
엄마의 보살핌과 보호의 눈빛 속에
우리는 마음껏 먹고, 자고, 놀고 있어요.



그녀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신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받고
따뜻함을 느껴요.

우리는 한 무리,
응석쟁이 강아지 떼예요!



듣고 있어.

하지만 네 이야기가 내 이야기보다
재미있을지는 모르겠는걸.



ZOLO

그는 헝가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비치나 하루 온종일 사슬에 묶인 채로 바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전 주인에게서 사들인 후 그는 석 달 동안 외상(목을 짊어주는 사슬 때문에 생긴 상처)과 몸 안의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고 충직하고 보호 기질이 강하며 들러붙습니다.

그는 이제 실내에서 함께 지내는 데 아주 익숙해져서 혼자 밖에 놓아두면 옵니다.

별명: 망아지, 덩치.

Zolo는 전에 나쁜 대우를 받아서 인간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온순한 집개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당시 그는 가혹한 여건에 있었는데도 내게 다가와 키스하고 우정의 표시로 발을 건넸습니다. 그의 처지는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곁에는 개통이 작은 언덕만큼 쌓여 있었죠! 더럽고 딱딱한, 먹다 남은 빵 한 덩이와 콘크리트 바닥만 있었고 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그는 지저저분한 털이 듬성듬성 빠진 채 목을 조이는 날카로운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목에 있는 쇠고리에 살이 베여 나중에 우리가 데려온 뒤에 우리 수의사가 수술을 해서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는 파리와 벌레들이 밤이나 낮이나 그 주변과 몸 위에서 앵앵거리는 상황에서 죽든지 살든지 빈집을 지키라고 거기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Zolo는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낯선 사람만 보면 짖으면서 달려들어 계속 공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훈련을 마치고 난 뒤 이제는 아주 부드러워져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애정을 보입니다. 그래도 다른 큰 개들을 대할 때처럼 적지 않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큰 개들은 해칠 의도가 없더라도 힘이 세서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Zolo는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매우 협조적이 되었고 그에게 이상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다시 말해 지배하려고 그의 등에 올라타거나 뒤쫓거나 짖어대며 못살게 구는) 올라타기쟁이 Hally를 잘 참아 줍니다.

전에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개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Zolo는 정말 놀랍도록 사랑이 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박

에 나갔다 들어올 때면 언제나 안으로 뛰어 들어와 나를 찾아내 찰싹 달라붙어서는 내가 떨어지라고 할 때까지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라고 했을 때조차 최대한 가까이 들러붙지요. 내 거처에 그를 돌봐 주고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는 누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의 충성심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는 Zolo예요.

겨울의 헝가리에서
여름의 지중해로 왔죠.

사슬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지금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

삶이란 게

항상 흑백 같기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삶은 천국과 같아요.



살은 햇볕.





삶은 파티.



“이리 와,
나랑 같이
춤추자!”

그리고 가능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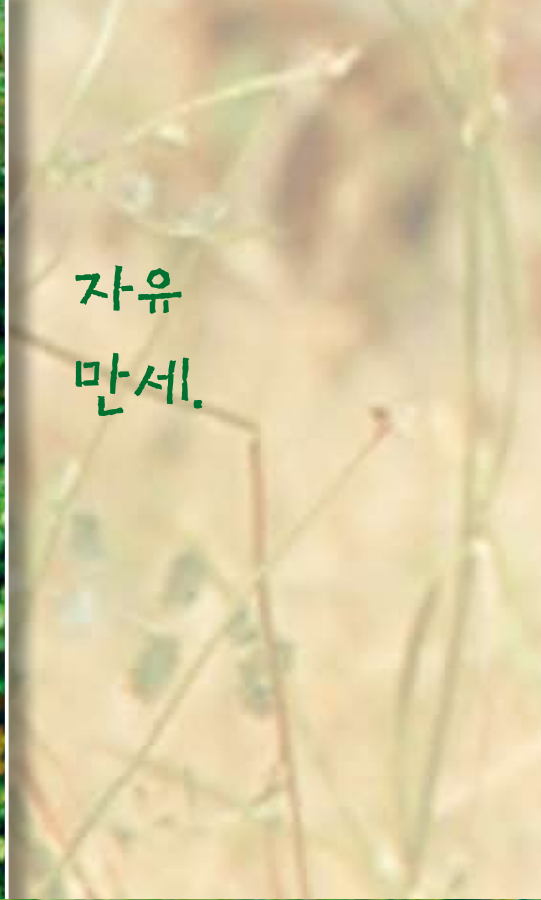


인간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이 여인이
나의 삶을 바꿔 준 분이예요.





자유
만세.



나의 인간
만세!



우정 만세!



우린 크고 작지만
서로 잘 맞는 친구랍니다.

사랑이란

애정을 보여 주는 것.



사랑이란 또한
같은
이상을
나누는 것.

우리 클럽에 들어온 걸 환영해, 캄씨!



우리 얘기 좀 할까.



알았어, 알았어!
네가 대장이다!





그래! 넌 항상 그러잖아, 형님.



“네 등을 올라타고 싶어!”




너를 지켜주겠어 ♥



♥ 잘 자.

♥ 내가 널 지켜줄게.

♥ 사랑하는 똥싸개.



난 새집이
좋아요.
(난생 처음 생긴 집)

“얘들아, 일어나! 운동 좀 해!”





난 이 무리와 여기 대장이 좋아요.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으면 박수를 치세요!

그녀에게
'간식거리'가
가득 있어요.



경이로움도
가득하죠.



그리고 그녀가 해주는 이야기들은.....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 있으면 사랑받고 안전한 느낌이 들지요.

이곳에서 우리는 삶과 **사랑**을 영원히 함께 누려요!
하늘과 엄마에게 감사드려요!



HALLY

헝가리 출신으로 사슬에 묶여 집을 지키던 Hally는 Zolo의 이웃이었습니다. 그곳엔 Hally만한 크기의 개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너무 추웠던 탓에 죽고 말았습니다. Hally는 거칠고 짓궂지만 이젠 인간에게 다정히 대합니다. 그는 아주 높이 뛰어오를 수 있어서 창문과 대문을 넘기도 합니다! 그는 자칭 ‘최고 개’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만 인간들에게겐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친구인 Zolo와는 같은 곳 출신인데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고 충직하고 보호 기질이 강하며 들러붙습니다!

별명: 러시아 룰렛(러시아 이름으로 뽀박이), 바보 점프쟁이, 곡예사, 운동광(네 가지 모두 같은 뜻임), 올라타기쟁이(다른 개들 위로 올라타는 걸 좋아해서), 곰돌이(곰과 닮아서).

사실, Hally는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걸 돕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Zolo에게서 보호하고 싶어합니다. 경비견이었던 Zolo가 그 습관 때문에 공격적으로 돌변할까 봐 걱정하는 거지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Zolo에게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도록 가르치고 싶어합니다!

Hally는 두 말이 필요 없는 인간의 친구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농장 마당에 묶여 지냈던 개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정말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인간 세계를 사랑합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 언제나 발라당 배를 보이고 누워 문질러 달라고 하거나 앞발을 사람 몸에 올리고선 자신만의 ‘깜찍한’ 방식으로 껴안아 줍니다. 누구도 그를 깊이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Zolo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그는 Zolo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는 Zolo 곁에 눕기를 좋아하고 ‘짧은 이별’(산책 나갔다가 Zolo보다 몇 초 일찍 돌아와서 집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씻기를 기다리는 동안) 후에는 Zolo 옆으로 자기 온몸을 몇 번이나 던지며 인사를 건넵니다.

저예요,

Hally,

헝가리 출신의

최고 개로서

숨을 곳도 없이

살을 에는 겨울과

찌는 듯한 여름을 겪은

들 중 최후 생존자!



드디어 자유롭게 되어
정말 좋아요!



전에는 성질이 안 좋았어요.
얼어붙은 것 같은 겨울과
타는 듯한 여름에
사슬에 묶여 지내면서
오랫동안 온정이나 보살핌, 사랑 따위는
알지도 못한 채 지내 왔다면,
성질이 나빠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정해
보이죠.

안 그래요?

하지만 이 문을
통과하려거든!

날 죽이고
가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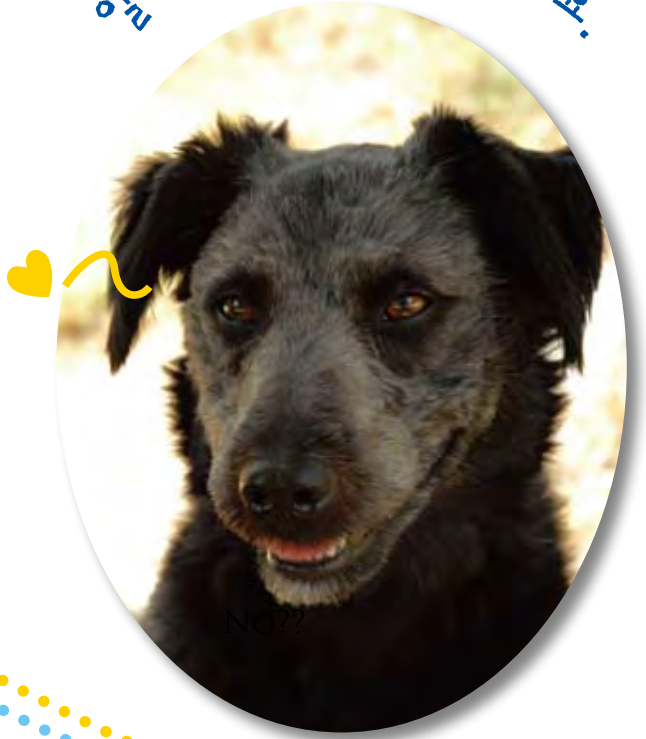
난 지금도 경비원!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농담이에요.)
도대체 누가
바보같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멍멍!



알고 보면 전 다정해요.



아니라고??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음, 이게 내 웃는 모습이에요.)

나도
'쓰다듬어'
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내가 말한 게
이거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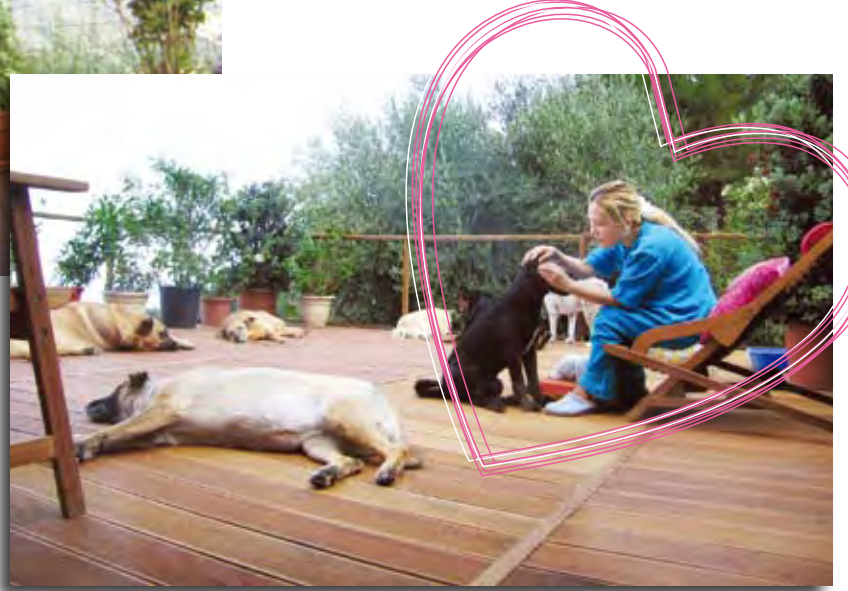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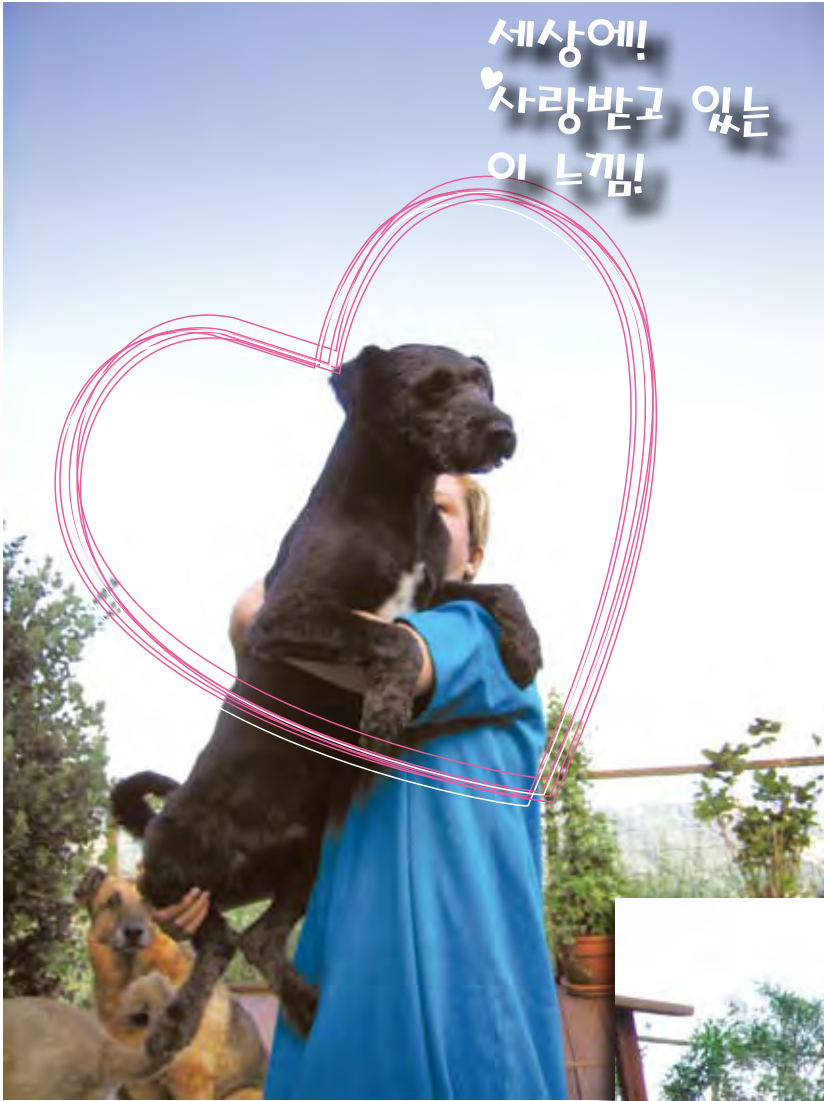


이런 사랑은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포옹도!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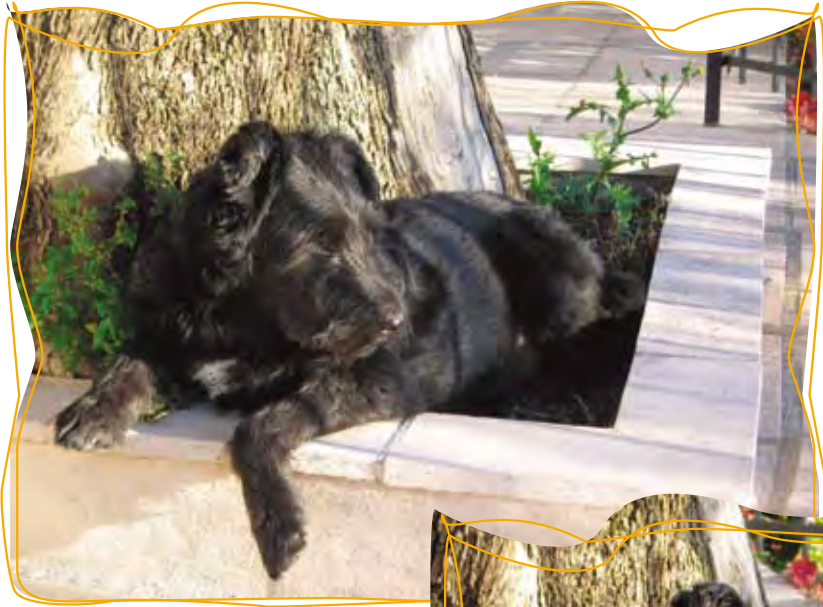
세상에!
사랑받고 있는
이 느낌!



남은 여생 내내

이 안내자만 따라야지. 🐾





바깥은
☀️

햇살 좋고
화창하고



쿨
쿨
쿨
실내는

부드럽고
편안해!

친구들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간식거리도
아주 많아요!
오~예!





이 
다음번은



내 
차례!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명상해
'부처' 된 사람이 있었나?



(내 생각엔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아니면



방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성불한 사람은?

(난 이미 불국토에 가 있는 것 같아. 야호!!)



‘위’에 무슨 일이야?

바다의 밤이
 은은한
 바람이
 휘날리는
 밤이




내가
 커다란 꿈인
 듯한
 느낌이야.



어쩐 일인지, 어느 생애가
어딘가에서
나무를 기어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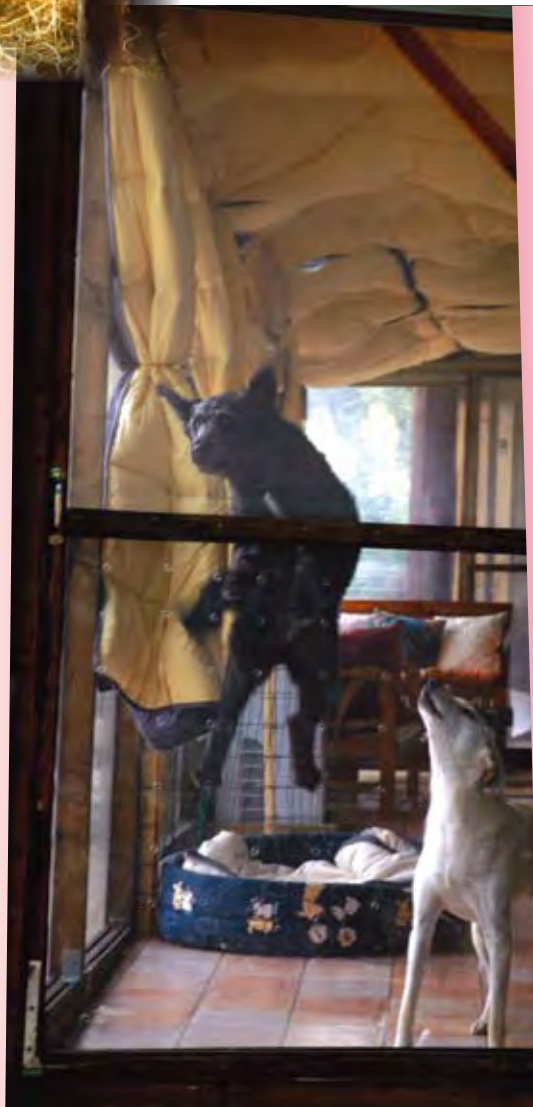
 한번 올라가 봐?
'지금'?



왜냐고?
요즘에
체육관에
다녔거든.



이런 곡예, 누가 할 수 있겠어?



미안해. ‘바보 점프쟁이’라고 불러서!



우리.....

앞발로 악수할까,
화해의 뜻에서?.....

—“봐서”—

친구, 인정하지 그래.



내가
대장이라고!!
딩치?
그딴 건 상관없어!

네 이웃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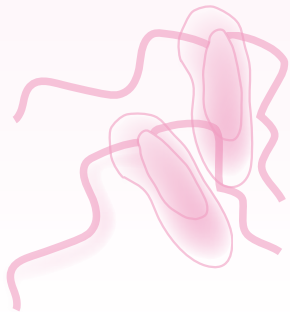
개념

사랑하라



네 이웃의 개를 사랑하라.







Bella가 새 겨울 옷을 입고 (엄마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준
새 양말을 신고 있어요. 새 음식도 먹고 있고요.
(하, 채식이에요! 저한테 좋은 거죠.)

에필로그

이 책은 개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에 대해 한 단편만을 묘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놀라움은 오직 개를 기르는 사람만이 알 수 있지요.

개들의 삶과 개성은 저마다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만들고도 남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개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한 마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독자들이, 개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또한 그들을 통해 다른 존재들에 대해 좀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모든 영혼들)가 다양한 형태로 물질계에 화현하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존재들은 우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자신의 시간을 다할 때까지 살아가며 이 행성을 다채롭게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걸맞은 존중과 평화, 사랑을 베풀어 그들의 좋은 동거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동물 왕국의 누군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기회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운 좋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다음 사람들의
세심한 지원에 감사하십니다.

Crystal Vo, Victor Ngo, T. June, Thomas Lux, Steven André, Danny Vu (사진 촬영)

Annie Yu, Nadia Yen, Chien Wei Ba-Li, Kim Cheng, Jackie (디자인 및 편집)

Gary Lai, Nadia Yen, Yu Hui-Chun, Wang Bor Tang, Sofia, Jackie (그래픽 디자인)

Lynn McGee, Jane Chu, Wenqing Li, Becky Chen, Sun Wang,

Clair, Moon (원고 교정)

“.....또한 사랑으로 충만한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 칭하이 무상사



동물들을 비롯한 모든 중생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에 이롭고 포근한 개집

자비로운 칭하이 무상사는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의 삶을 향상시킬 방법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세심한 지침 하에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들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집이 되어 줄 안락한 개집 시리즈가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각각의 개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자랑합니다.

*비바람을 막아 주는 경사형 여닫이 문을 갖춘 견고한 무독성 목재 구조

*플렉시 글라스 자재로 덮인 널찍한 현관

*폭신평신향 의료용 바닥 폼으로 편안함을 더해 줌

*여름에 보다 통풍이 잘 되도록 해줄 탈부착식 창문

이 개집은 조립도 쉽고 청소하기도 간편합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 강아지 친구들에게 이런 멋진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아주 덥거나 추울 때, 혹은 위험 지대에서 밤을 보낼 경우에는 애완 동물을 실내에 들여 개들이 도둑이나 야생 동물들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주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사실 개집은 필요하다거나 원할 경우에 한해 놀이용으로만 낮 시간 동안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개들은 '주인'의 집안을 더 좋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3/index2.htm>,
Holistic Animal Care 부분)





해피 도기 천의(天衣)와 잠자리 매트리스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로운 지침에 따라 사상 최초로 해피 도기 천의 및 잠자리 매트리스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다양한 크기의 개들에게 알맞은 각각의 스타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옷은 외관상으로도 예쁠 뿐 아니라 실용 면에 있어서도 보온도 잘 돼 인간의 충성스런 친구들을 추운 날씨에 멋지고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7/index2.htm>,
Holistic Animal Care 부분)



애견 건강식품

칭하이 무상사의 자상한 지도 아래 우리 개 친구들을 위한 건강에 이롭고 영양도 골고루 들어 있는 천연 채식 개 사료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동물 성분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양사들이 특별히 배합해 만들었습니다. 콩 단백질 추출물, 옥수수, 귀리 등 여러 곡물을 주성분으로 한 이 균형 잡힌 건강식품은 소화도 잘 되고 신진대사에도 이롭습니다. 또한 애완견에게 많은 활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개의 구강 건강과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고 털도 윤기 있게 가꾸어 줍니다.

세심하기 이를 데 없는 칭하이 무상사는 개에게 방금 만든 음식을 먹이는 것이 더 좋다고 권하시면서 신선한 음식이 없거나 바쁠 때는 사료 식품을 대용품으로 쓸 수 있다고 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75/index.htm>)





우리 동물 친구들과 소통하고 돌보는 법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다른 특별한 동물 반려들에 대한 스승님의 영감 넘치는 이야기들에 대해 보시려면 다음 비디오테이프와 DVD를 참고하세요.

- DVD 712 동물의 신성한 지성
20010605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14 개는 경이로운 존재이다
20010606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18 사랑은 항상 좋다
20010607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16 자연스럽게 신을 사랑하는 법
20010608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38 단순한 생활(스승님과 장주들)
20010426, 20010501, 20010512, 20010521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11 인생이라는 호텔
20010623 미국 프레스노
- DVD 717 좋은 이웃의 미덕
20010611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30 사랑으로 소통하라
20011225, 20011226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33 고귀한 이상을 가지고 살자
20010610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34 깨달은 스승의 사랑스런 감촉
20011226~20011227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40 조화롭게 생활하는 법을 배우자: 2002년 스승님 생신 경축 행사
20020511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19 나쁜 습관 극복하기
20010609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24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
20010612~20010616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28 선한 생각의 가피력
20011226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35 변화의 용기
20011228~20011230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55 웃는 성인들
20030203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56 정직의 가치
20030216, 20030218 미국 플로리다 센터
- DVD 771 젊은이의 열정
20060612
- DVD 772 웃으며 바라보는 인생
20060615
- DVD 773 무조건적인 헌신
20060612~20060707
- DVD 780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

즉각 깨닫는 열쇠

칭하이 무상사 강연집.

한국어(1-11), 독일어(1-2), 몽골어(1, 6), 스웨덴어(1), 스페인어(1-3), 어울락어(1-15), 영어(1-5), 인도네시아어(1-5), 일본어(1-4), 중국어(1-10), 태국어(1-6), 티베트어(1),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헝가리어(1).

즉각 깨닫는 열쇠-문답록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중 문답 내용 수록.

한국어(1-4), 독일어(1), 러시아어(1), 불가리아어(1), 어울락어(1-4), 영어(1-2), 인도네시아어(1-3), 일본어(1), 중국어(1-3), 체코어(1),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프랑스어(1), 헝가리어(1).

즉각 깨닫는 열쇠 특별판/ 선철집

1992년 포모사 산디먼 선철 행사에서 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집. 어울락어, 영어.

즉각 깨닫는 열쇠 특별판/ 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1993년 세계 순회강연을 담은 6권 전집. 영어(1-6), 중국어(1-6).

사제지간의 편지

스페인어(1), 어울락어(1-2), 영어(1), 중국어(1-3).

즉각 깨닫는 열쇠-신기한 감응 (1-2)

어울락어, 중국어.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한국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영어, 어울락어, 중국어.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한국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후광이 너무 꼭 끼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영어/중국어.

삶을 다채롭게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과 인용문 모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비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1999년 유럽 순회강연 중에 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집.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어, 그리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황금시대의 생활 시리즈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발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감로범어(1)

스승님이 말씀하신 주옥같은 영원한 지혜.
한국어,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영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감로범어(2)

스승님이 말씀하신 주옥같은 영원한 지혜.
영어, 중국어.

무상 주방-전세계 채식 요리

동수들의 전세계 추천 요리집.
어울락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무상 주방-가정식

영어/중국어.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에 소개된 음악과 인터뷰 모음집.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회화 시리즈

그림을 보면 그 화가의 내적 자아가 보인다. 이 책에 담긴 해탈한 존재의 강렬한 애정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모성애가 큰 감동을 줄 것이다.
영어, 중국어.

S.M. 천의집(6)

영어/중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2)

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두 권짜리 책은 스승님이 당신의 반려견들의 멋진 실생활 이야기를 담아 출판하신 것이다.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고귀한 야생

한국어, 독일어, 몽골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천상의 예술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위기에서 평화로-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

한국어,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태국어, 텔루구어, 헝가리어.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야네즈 드르노프세크 박사의 저서.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시 작품

침묵의 눈물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무자시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나비의 꿈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조약돌과 황금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잃어버린 기억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그 옛날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천년의 사랑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진정한 사랑

책과 MP4, 영어, 중국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책과 MP3, DVD, MP4, 중국어, 영어.

전생의 발자취 MP3(1, 2, 3), 어울락어.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MP3(1, 2, 3), 어울락어.

시공을 초월하여 MP3, DVD, MP4, 어울락어.

향기로운 손길 MP3, 어울락어.

지난날과 지금 MP3, 어울락어.

한밤의 꿈 MP3, DVD, MP4, 어울락어.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MP3, 어울락어.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MP3, 어울락어.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MP3, DVD, MP4,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사랑의 노래

칭하이 무상사가 시간을 초월해 사랑받는 노래들을 부르심. MP4, 어울락어, 영어.

보석 시집

MP3, DVD, MP4. 칭하이 무상사가 어울락의 저명한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노래하고 낭송하심.

황금 연꽃

MP3, DVD, MP4. 어울락어 시 낭송.

고대의 사랑

MP3, DVD, MP4. 어울락어 시 낭송.

MP3와 DVD, MP4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MP3, DVD, MP4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광둥어, 그리스어, 네팔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등. 카탈로그를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언제든지 바로 문의 주세요.

우리 서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http://www.theCelestialShop.com>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또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전화: (886) 2-23759688

팩스: (886) 2-23757689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즉각 깨닫는 열쇠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80개 언어)

<http://sb.godsdirectcontact.net>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 연락처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O.Box 9, Hsihu, Miaoli Hsien, Formosa (36899),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peace@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2375-9688

팩스: 886-2-2375-7689

<http://www.smchbooks.com>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S.M. 셀레스티얼 주식회사

이메일: smclothes123@gmail.com, vegan999@hotmail.com

전화: 886-3-4601391

팩스: 886-3-4602857

<http://www.sm-cj.com>

러빙허트 인터내셔널

이메일: info@lovinghut.com

전화: 886-2-2239-4556

팩스: 886-3-2239-5210

<http://www.lovinghut.com/tw>

<http://www.lovinghutfood.com/tw>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54-535-925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SM 보석·천의·만세등·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비건 채식을 하고
평화를 이롭시다

AMAZON.COM 1위
베스트셀러!

Kingstone.com 베스트셀러! (중문판)

The Birds in My Life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칭하이 무상사 지음



영문판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www.amazon.com/dp/9866895149/>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구성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를 동물들의 내면세계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그들 또한 우리에게 주지 없이 마음을 열 것이다.

참으로 멋진 이 책의 각 페이지에는 사랑과 조화로움이 흐르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로 하여금 동물이 매우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정말 놀라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좋은 친구이다. 모든 분이 이 경이로운 책을 읽어 보시길 바란다.

집으로 배달된 책에서 각 페이지마다 흐르는 사랑을 경험해 보시길.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

DVD-780

지구의 모든 공동 거주자들에게 바칩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저서인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함께 출판된 DVD, MP4 기념판.

칭하이 무상사가 사랑하는 개들, 소중한 앵무새들과 함께 나누는 내적 의사소통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은가? 부드러운 어루만짐, 애정이 넘치는 대화, 가슴에서 우러난 신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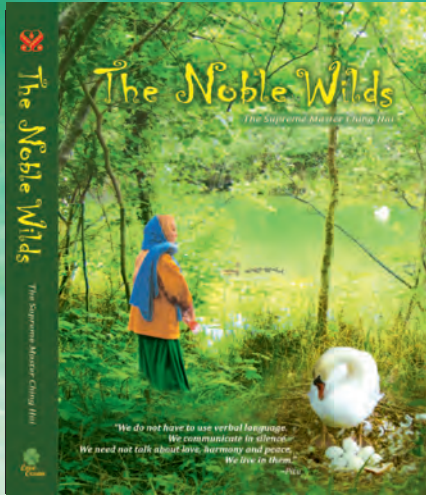
이 90분짜리 영상은 칭하이 무상사와 10마리 개들, 23마리 앵무새들 간의 진실한 사랑과 행복한 삶을 그려 내고 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의 저자



고귀한 야생

칭하이 무상사

은 울감 있고 사색적인 어조의 우아한 글들이 책 전편에 흐르는 『고귀한 야생』.

대자연 속의 신의 창조물을 담은 눈부신 사진들이 그 빛을 더해 준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독자는 '여사'가 거주하며 귀한 야생 존재들의 방문을 받고 있는 아무라(Amoura)로 이동하게 된다.



이 '여사'는 다름 아닌 칭하이 무상사이다. 그리고 『고귀한 야생』은 단순하지만 깊은 감동이 어린 그녀의 또 다른 선물이다. 스승님이 집필은 물론 사진 촬영과 편집까지 하신 이 귀한 보석은 독특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 준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백조, 기러기, 다람쥐, 비버, 심지어 자그마한 달팽이에 이르기까지 야외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존재들의 고귀한 영혼과 헌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피하지만 '여사'에게는 사진 찍기를 허락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다가가 다정한 여사한테서 좋아하는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까지 보여 준다. 여기서 전해지는 사랑은 그 무엇과도 다르다. 존엄과 은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만큼이나 심오하고 오래도록 이어진다.

인터넷 아마존닷컴 구입:

<http://www.amazon.com/Noble-Wilds-Supreme-Master-Ching/dp/9868415233/>

고귀한 야생 DVD-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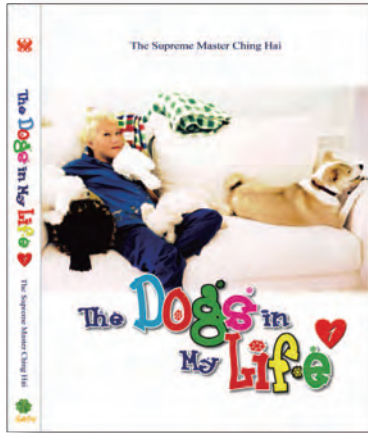
인터넷 아마존닷컴 구입

이 다큐멘터리는 독특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준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최초로 선보이는 자연에 대한 경의, 야생동물 친구들의 마음.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The Dogs in My Life



양장본
1권: 268페이지
2권: 274페이지
크기: 21cmx28cm

“ 독자들이, 개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또한 그들을 통해 다른 존재들에 대해 좀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칭하이 무상사

영문판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은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http://www.amazon.com/dp/9866895076/>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2)

<http://www.amazon.com/dp/9866895084/>

새로 출간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2)』은 칭하이 무상사가 직접 애정을 갖고 쓰고 디자인한 첫 번째 출판물이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Benny, Lucky, Happy, Goody, Hermit 등의 이름을 가진 10마리 개 친구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소박함, 진실된 우정의 기쁨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학자, 과일광, 새침떼기 공주, 칩 어호이, 그림자 사냥꾼 등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 보시길. 그들 모두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반려인'에 대한 헌신은 절대적이다. 그들의 유머와 지성, 다른 많은 고귀한 품성들은 진실로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읽어 보세요.
지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들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영문판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http://www.amazon.com/dp/9866895149/>

우리 웹사이트와 블로그
<http://mycestialpets.com>
<http://www.godsdirectcontact.org/birds/>
<http://www.loveocean.org/dogs/>



대안적인 삶 Alternative Living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음식을 바꾸세요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건강해지고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생명을
구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영양이 풍부하고 생명을 구하는 음식의 예:

| 음식 | 단백질 함량 (중량 백분율) |
|--------------------------|-----------------|
| 두부 (원료: 콩) | 16 % |
| 글루텐 (원료: 밀가루) | 70 % |
| 옥수수 | 13 % |
| 쌀 | 8,6 % |
| 대두, 강낭콩, 병아리콩, 렌즈콩 등 | 10 - 35 % |
|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헤이즐넛, 잣 등 | 14 - 30 % |
| 호박씨, 참깨, 해바라기씨 등 | 18 - 24 % |

- 농축 종합 비타민 정제/캡슐 또한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을 두루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 과일과 야채는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이 풍부하며, 고품질의 섬유질이 들어 있어 건강 유지와 장수에 좋습니다.
- 일일 단백질 권장량 : 50그램 (일반 성인 기준)
- 식물성 칼슘은 우유의 칼슘보다 흡수력이 더 좋습니다.

- 조류독감으로 인한 전세계적 유행병의 실질적인 위협을 줄이려면,
- 광우병 및 돼지 질병(PMWS 증후군)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축들, 해양 생물, 조류 친구들이 매일 수십억씩 계속해서 끔찍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면,

평생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 채식은 건강입니다
- 채식은 경제입니다
- 채식은 생태입니다
- 채식은 자비입니다
- 채식은 평화입니다
- 채식은 숭고합니다



여러분
장수하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대안적인 삶 홈페이지(www.GodsDirectContact.or.kr/al), E-Mail: AL@GodsDirectContact.or.kr
생명사랑 채식실천협회(www.bevege.or.kr), 한국 채식연합(www.vege.or.kr)

건설적인 프로그램만 방송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드립니다.

전세계에서 시청 가능한 24시간 인터넷 TV 생방송: www.SupremeMasterTV.com/kr

펴낸곳: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Rm. 16, 8F., No.72, Sec. 1, Zhongxiao W. Rd., Zhongzheng Dist., Taipei City 100,
Formosa(Taiwan) R.O.C.

전화: 886-2-23759688

팩스: 886-2-23759689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웹사이트: <http://www.smchbooks.com>

이 책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해도 좋습니다.



내 인생의 개들

The Dogs in My Life

개들이 준 영감으로
칭하이 무상사 엮음

사진 촬영:

Supreme Master Ching Hai, Crystal Vo, Victor Ngo, T. June, Thomas Lux,
Steven André, Danny Vu

디자인 및 편집:

Annie Yu, Nadia Yen, Chien Wei Ba-Li, Kim(포모사); Jackie(서후)

그래픽 디자인:

Gary Lai, Nadia Yen, Yu Hui-Chun, Wang Bor Tang(포모사); Sofia, Jackie(서후)

원고 교정:

Lynn McGee, Jane Chu, Wenqing Li(미국); Becky Chen(포모사); Clair, Moon(서후)

번역·교정:

한국 번역 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08-9호

전화: 070) 7527-8527

팩스: 031) 591-3313

이메일: smbooks@hotmail.com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출판 신고: 제2008-4호 2008년 1월 21일

초판 발행: 2008년 3월 일

Copyright©2008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이 책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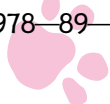
저자 또는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해도 좋습니다.

값 원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978-89-*****-**-* 04200

ISBN 978-89-*****-00-0 (세트)



Recommendations from Readers Worldwide



전세계 독자들의 추천사

류상란/ 동물복지 환경보호 기구 회장 (포모사/ 대만): 진실함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과 동물 간의 관계는 이심전심의 사랑이 좌우한다. 동물들은 인간을 완전히 신뢰하고 인간에게 충실하며 자신의 일생을 기꺼이 헌신한다.

패트리샤 코트만/ 독일 문화 센터 예술 활동 담당자 (포모사/ 대만): 칭하이 무상사의 책은 개와 인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고무적인 증거이다. 나는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여 이 멋진 동물들에게 마음을 열고 존중하며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간과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손 매코맥/ '애니멀 케어' 창립자 및 소장: 개는 다른 존재들이 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역동적인 활기를 우리 삶에 더해 준다. 그들은 삶 속의 단순한 것들을 즐기는 법과 자연에 감사하는 법, 순간을 사는 법을 일깨워 준다. 또한 우리에게 충직함과 재미, 따스함, 사랑, 웃음을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준다. 견공 친구와 함께하는 삶은 최고로 충만한 삶이다.

옌이핑/ 타이베이 동물 위생 검사소 원장 (포모사/대만): 칭하이 무상사는 동물들과 함께한 생활 이야기와 이 동물 친구들의 고귀한 품성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독자들과 나눈다. 그녀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교감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같은 품성을 갖고 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라는 깨달음을 준다. 또한 그녀는 동물들이 마땅히 사랑과 보호를 받고 소중히 여겨져야 하며 인간은 동물과 함께 이 멋진 세상을 공유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귀한 품성과 삶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 담긴 그녀의 책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투파이/ 유명한 수의사 (포모사/대만):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의 저자는 기발하고 익살스러운 글을 통해 인간과 동물 간의 교감과 진정한 사랑, 영적인 소통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책에는 주연과 조연이 없다. 모두가 동등하며 서로를 존중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가깝고 친밀하다.

한의사 (중국): 자신의 반려견들과의 신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다. 이 책은 “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을 가장 뜻깊게 풀이했다. 덕분에 나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 높아졌고 모든 존재에 불성(신)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로움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구민/ 입법원 교육문화위원회 총비서 (포모사/대만): 이 책은 우리에게 집 없는 이 개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 어린 보살핌을 받아 귀엽고 활발한 동물로 변모한 과정을 이야기한다. 모든 사진이 칭하이 스승님의 영성과 사랑을 방증한다. 그녀는 서로 다른 형태의 삶 속에 마법 같은 교감을 일으켰다.

Recommendations from Readers Worldwide

전세계 독자들의 추천사

린쉬원얼/ '베지테리언 플래닛' 최고 경영자 (포모사/대만): 동물은 인간을 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그윽하고 깊은 눈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다. 동물들을 들여다볼 마음이 있다면 그들 속에서 웃음과 눈물, 순수한 사랑과 지혜의 빛을 발견할 것이다.

C. R. 라이/ 향토 생활 예술가 (포모사/대만): 파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진과 익살스러운 말을 통해서,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에게 열 마리의 '고귀한 영혼'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을 보여 준다.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이라면 이 사진과 글에서 발산되는 사랑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에 실린 "우리의 사랑스런 동물 친구들은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혹은 바다에 살든 우리 인간이 바라는 삶과 똑같이 사랑과 보호를 받고 소중히 돌봐져야 합니다."라는 기도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병희/ 골동품 전문가, 백년깁러리 대표 (대한민국): 사랑 어린 개들의 눈을 보았을 때 그들을 우리 친구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희윤/ 소설가 (대한민국): 어떤 사진에서는 연인들의 속삭임이, 어떤 사진에서는 자녀들에게 애정 어린 사랑을 보내는 엄마가, 또 다른 사진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고귀한 숙녀를 보호하겠다!" 같은 동물들이 가진 용맹한 정신이 느껴진다. 저자와 소통하는 개들을 보면 "오! 그들에게 영혼이 있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에 관한 아마존닷컴 전세계 독자 서평

***** "내 인생 최고의 책"

릴리 P: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은 훌륭한 책이다. 나와 남편 모두 칭하이 무상사와 그녀의 개들이 보여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행복을 주는 기운을 즐기면서 감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아의 봉사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친다.

***** "이 시대에 반드시 소장해야 할 책"

치아 무이/ 싱가포르:

칭하이 무상사는 이 책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가르쳤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2)』는 충만한 사랑을 담은 정말 아름다운 두 권의 책이다. 개들은 무척 놀랍고 사랑이 넘치며 다정하고 충직하며 감사할 줄 알고 재미있다. 개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 감동시킬 것이다.



***** “훌륭한 책”

S. 레:

책을 받아 봤는데 개들이 정말 귀여웠다. 그들은 많은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나도 한 마리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 “아주 멋지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

피에르 마리에 드그라프 ‘애견가’/ 미국 뉴욕:

이 원색 사진들은 각각 고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칭하이 스승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아름다운 개들의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정말 모든 개들과 생명에 대한 희망과 자비심을 보여 준다.

***** “이 책 속의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들”

K. L./ 미국 캘리포니아:

칭하이 무상사의 이 책들(『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전해 줘서 감사한다. 이 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존재들의 고귀한 품성을 알게 도움을 줄 것이고 그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사랑은 물론 주위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사랑도 키울 것이다.

***** “개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마법의 순간”

개리 니클라스/ 일본 도쿄 요코타 공군 기지:

원래는 내가 읽으려고 샀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서 미국에 있는 네 살짜리 조카에게 줄 선물로 한 권을 더 샀다. 그 애의 부모가 이 책을 읽어 줄 때 조카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 내릴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을 보면 이 고귀한 존재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헌신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책이 우리를 마법처럼 이 소중한 동물들의 마음속으로 데려가는 걸 발견했다. 우리가 동물들의 시각으로 삶을 체험하기란 극히 드문 일이다.

***** “사랑과 자비의 책”

아피사다 불파크디/ 미국 버지니아:

나는 개를 사랑한다. 칭하이 무상사가 개들에게 베푸는 헌신과 사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이 책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킬 것이다. 나는 새를 키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책은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책의 품질도 아주 훌륭하다.

여기에 실린 글이나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의 독자 서평을 더 많이 보시려면 www.amazon.com을 방문하세요.



Recommendations
from
Readers
Worldwide



가장 사랑하는 하늘이시여, 친애하는 인과의 왕이여,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소서.
궁지에 처한 그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위 천국에는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위로 데려가 사랑을 베푸소서.

- 칭하이 무상사 -

9 788996 079514 04890
ISBN 978-89-960795-1-4 04890
ISBN 978-89-960795-0-7 (전2권)